문화매일

제1414호 2023/6/27/Tues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윤석열 대통령, "한국·베트남, 이젠 R&D 핵심 파트너"

대통령, 하노이 삼성전자 R&D센터에서 '한-베 디지털 미래 세대와의 대화' 시간 가져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4일 오전 베트남 국빈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하노이 삼성전자 R&D센터를 방문, '한-베 디지털 미래세대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베트남의 쩐 르우 꽝 부총리 및 후잉 타잉 닷 과학기술부 장관,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R&D센터 임직원,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디지털 기업 및 한국에 진출한 베트남 디지털 기업, 한·베트남 양국의 디지털 청년 인재들이 함께했다.

50여 명의 디지털 미래세대와의 대화의 사회는 Korea IT School 수료 후 메가존 베트남 법인에 취업한 쩐 티 투 히엔이 맡아 양국 언어로 진행했다. 그리고 한국 유학 출신으로 하노이 삼성전자 R&D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딘 쭝 득, 베트남에서 사업을 성장시키려는 김승용 코코넛사일로 대표, 한국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희망하는 FPT 소프트웨어 코리아 팜 옥 선 부사장 등 한-베트남 디지털 미래 세대들이 그간의 한국과의 교류 경험을 밝히고, 국제 공동 연구, 문화 협력 등 양국의 협력 확대를 제언했다.

대통령은 제조 협력 파트너에서 연구개발 핵심 파트너로 진화한 한-베트남 디지털 파트너십의 의미를 강조하며, 한국과 베트남의 기술을 융합해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양국 간 공동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미래세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육성 프로그램의 규모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디지털 미래세대와의 대화'에 앞서, 한국이 설립을 지원한 베트남의 VKIST, 베트남의 SW 인재를 양성하는 Korea IT School, 폴더블폰의 힌지 부품에서 세계 1위를 점유하고 있는 디지털 기업인 KH바텍의 부스를 찾았다.

먼저 VKIST는 우리나라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모델을 토대로 설립된 베트남의 미래형 과학기술 연구기관이다. VKIST의 부 득 러이 부원장(원장 대행)과 팜 두이 합 연구책임자는 '범용성 있는 자율주행 로봇' 등 그동안 KIST와 VKIST가 공동 연구한 성과를 시연했다.

Korea IT School은 베트남 청년들에게 SW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을 이수한 베트남의 인재들이 현지 한국 기업의 인력으로 채용되도록 돕는 선순환 프로그램이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208명을 교육했고, 이 중 172명을 현지 우리 기업에 인턴으로 채용 연계했다. 실제 Korea IT School에서 교육받은 후 현재는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체인 DS Global에 근무하고 있는 황 민 뚜언이 자신의 교육 및 취업 경험담을 소개했다.

KH바텍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으로 폴더블폰의 경첩 역할을 하는 힌지를 제조·생산하는 기업이다. 폴더블 힌지 분야에서 약 80%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 현지 직원도 9,000여 명을 고용했다.

이번 삼성전자 R&D센터에서 열린 '한-베 디지털 미래세대와의 대화'는 베트남의 미래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세대가 문화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디지털 파트너로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한편, 삼성전자 R&D센터에 취업한 연구원, Korea IT School 교육생 등 베트남 청년들의 이름을 새겨 파트너로서의 한-베 미래세대를 형상화한 백월에는 당사자들이 찾아와 자신의 이름을 찾고, 기념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광수/기자

서울시, 일본 MZ세대에 서울매력 알린다… 도쿄서 서울관광 프로모션 개최

오세훈 시장, 요리사 복장으로 등장해 '서울관광 토크쇼'서 빈대떡, 약과 등 서울의 맛 소개

오세훈 시장이 한국 음식과 콘텐츠를 즐기는 일본의 젊은 세대에게 서울 라이프스타일을 소개하기 위해 24일 17시 20분 '2023 SEOUL EDITION in TOKYO' 현장을 찾았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20주년을 맞은 일본의 한류 붐과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기념해 6월 24일(토)부터 25일(일) 양일간 도쿄에서 서울관광 프로모션 '2023 SEOUL EDITION in TOKYO'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2003년 겨울연가 신드롬으로 일본에서 한류가 시작된 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일본 내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 '사랑의 불시착' 등이 OTT를 통해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하늘길이 닫힌 코로나 시기에도 한국에 온 것처럼 노는 '도한놀이(渡韓ごっこ·한국 여행 놀이)'가 유행할 만큼 꾸준히 한류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SEOUL EDITION'은 지금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트렌디한 서울을 '한정판 아이템'으로 표현한 '23년도 서울관광 글로벌 마케팅의 테마이다. 지금 꼭 가봐야 하는 서울을 알리기 위해 '2023 SEOUL EDITION in TOKYO'를 타이틀로, 지금 아니면 만날 수 없는 따끈따끈한 2023 신상 서울의 모습을 담고자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K아이돌로 시작과 마무리를 장식했다. 행사의 개막은 MC 강남과 함께한 K아이돌 패션쇼로 보아, 신화 등의 1세대 K-팝 아티스트를 시작으로 2세대 동방신기, 3세대 BTS, 블랙핑크, 4세대 뉴진스, 스트레이키즈 등 세대별 유명 K-팝 그룹의 무대 의상과 퍼포먼스로 색다른 패션쇼가 펼쳐졌다. 또한, 인기 K아이돌을 초청한 마무리 공연에서는 현지 관람객들의 열띤 반응을 통해 한류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1일차 행사에는 6인조 보이그룹 BTOB(비투비)가, 2일차에는 AB6IX(에이비식스)가 무대를 채웠다. 양일간 권은비, CLASS:y(클라씨) 공연도 함께 진행됐다.

행사 첫날, 현장을 찾은 오세훈 시장은 '서울 관광 토크쇼'에 참석해 요리사 복장으로 서울에 오면 반드시 맛봐야 할 음식을 소개했다. 삼겹살부터 떡볶이, 핫도그, 약과를 비롯해 광장시장의 빈대떡까지 다양한 서울의 맛을 일본 현지인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직접 경품 추첨도 진행했다.

최광수/기자

경북도 이철우 도지사, 호주에서 쉴 틈 없는 지방외교 이어가…

뉴사우스웨일즈주 하원의장, 시드니 시장, 지방정부협의회장과 협력 다져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호주 방문단은 지난 23 일 뉴사우스웨일즈주 (NSW) 하원의장 , 시드니 시장 , 지방정부협의회장을 연이어 만나 지방정부 간 상호 교류와 신규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하며 쉴 틈 없는 지방외교를 이어갔다 .

이철우 지사는 그렉 파이프 (Greg Piper) 뉴사우스웨일주 하원의장을 만나 양 지역 간 경제 , 인적교류와 협력사업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함과 동시에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

이어 클로버 무어 (Clover Moor) 시드니 시장을 만나 경북도와 관광 등 새로운 교류협력 기반을 다졌으며 , 린다 스콧 (Linda Scott) 호주 지방정부협의회장과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상호협력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

린다 스콧 회장은 "537 개 지방자치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호주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정부의 운영 투명성 제고와 성과평가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라며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광역시 · 도 간 협력 증진과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위해 17 개 회원과 228 개 시장군수협의회가 활동하고 있어 , 향후 한국과 해외정부와의 협력사업 발굴 및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 라고 언급했다 .

이에 이철우 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는 물론 경북도에서도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로 권한이양과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지방시대 주역은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 라고 강조하며 향후 호주 지방정부와 교류 확대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

이철우 지사는 이날 오후 호주 총영사 일행과 한인회 관계자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제품 (K-Products), K-POP 등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호주 시장진출 및 개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고 교류 사업을 논의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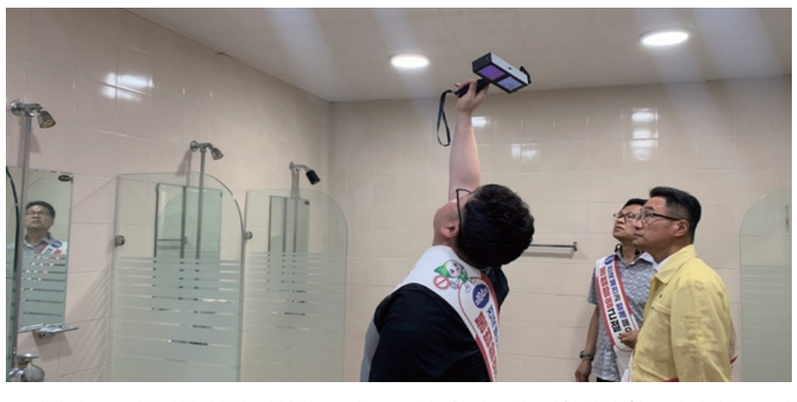
또 한인마트인 프레쉬마트 아시아나 (Fresh mart Asiana) 에서 도내 17 개 업체의 28 개 품목을 대상으로 현지 홍보 , 판촉행사를 개최해 호주 현지인뿐만 아니라 한인 교포들에게 경북도의 우수상품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금까지 한류가 이렇게 강하게 불고 있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 , 이 기회를 잘 활용해 새로운 '수출 대한민국' 을 만들어 가는데 기업인과 정부 , 지방정부가 하나 되어 더욱 전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 .

윤근수 / 기자

전남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체전 환경 온힘

관·경 합동점검반, 화장실 등 편의시설 '몰카' 집중점검



전라남도는 10월과 11일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참가 선수단과 관람객에게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기장 불법 촬영기기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6월부터 체전 기간까지 운영하는 이번 점검은 전남도와 22개 시군 체전 담당부서, 환경부서, 경찰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합동점검반은 22개 시군에 분산된 전국체전 70개 경기장과 장애인체전 38개 경기장 내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전파탐지기, 적외선탐지기, 렌즈탐지기 등 탐지장비를 활용해 정밀 탐색하고 육안으로 화장실 칸 내벽이나 천장 등 의심되는 물체와 흔적을 철저히 확인해 안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촬영의 경각심을 알리는 경고 스티커를 부착한다.

강인중 전남도 전국체전기획단장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선수단과 관람객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주 개최지인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1월 3일부터 8일까지 12개 시군 38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으로 열린다.

박종배/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6·25전쟁 73주년 맞아 "성숙한 민주주의, 평화로운 미래, 더 큰 번영을 열어가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

경기도, 「6·25전쟁 제73주년 행사」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25전쟁 73주년을 맞아 "성숙한 민주주의, 평화로운 미래, 더 큰 번영을 열어가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25일 오전 11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층 경기홀에서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 경기도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웅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6.25전쟁 제73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UN군 참전용사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와 유가족께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6·25전쟁 관련 기념비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역사의 현장이다. 도내 13곳에 UN군 참전비가 자리하고 있으며, 가평 등 격전의 영광과 상흔을 안고 있는 지역과 파주 DMZ처럼 정전과 평화를 표상하는 지역 모두 품고 있다"라며 "그 소중한 역사적 자산을 미래를 위한 더 큰 평화와 생명의 가치로 계승해 내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한반도 평화는 73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참전을 불사한 세계인의 염원이자 모두의 미래"라며 "성숙한 민주주의, 평화로운 미래, 더 큰 번영을 열어가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사회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6.25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배우고 참전용사와 UN 참전국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호국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는 6.25전쟁 참전용사와 유가족, 보훈단체 회원, 군 지휘관, 보훈기관과 관계기관 단체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해병대사령부 군악대와 의장대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UN 참전국 국기 입장식과 6.25 관련 영상 시청, 참전유공자 공로패 수여, 경기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과 6.25의 노래 제창 등이 진행됐다.

최만식/기자

문화매일 6월 27일 사령

박원규 함평군, 영광군, 진도

최갑문 신안군, 해남군

오정현 무안군, 영암군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째날 결산심사 실시

지방세 과소추계, 이월사업, 불용예산 등 강하게 질타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도 본청 각 실국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첫째날 자치행정국장의 총괄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道 집행부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토론을 통해 지방세 수입의 과소추계, 불용예산과 이월사업,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날선 질타와 예리한 지적들이 쏟아져 나왔다.

김홍구 부위원장(상주)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군에 지원하는 레저서비스 기업 유치 인프라 구축비에 관해 질의하며,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사업은 보조금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올해 세수부족이 우려되는 만큼,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북도의 그간 부채 상환 노력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미래 후손들을 위해 채무 상환에 좀 더 신경을 써 줄 것을 부탁했다. 뿐만 아니라 학부형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저출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의회 홍보기능이 도 본청에 비해 미진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의회도 도 본청처럼 언론 매체를 통한 도정 홍보, 의원 브리핑룸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의회 차원의 홍보기능 확대를 주문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메타버스 활용현황, 대변인실의 홍보 방식, 경북연구원의 운영실태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경북연구원이 대경연구원에서 분리되어 새로이 출범하는 만큼, 소관 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에서 경찰 치안 상당부분을 보조하는 역할이 크므로. 자율방범대의 순찰차량 노후화로 인한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과,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의 낮은 집행률 등을 질의하며 개선을 요구했고, 특히 코로나19로 힘든 중소기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생활폐기물매립장 허가 시 지역민과의 소통문제, 소멸기금의 추진 속도가 느리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특히 앞으로 소멸위기 지자체에 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투자유치실에서 진행하는 투자가 관광·미디어 부문에는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북의 특색 있는 곳을 잘 활용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앞으로 경북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MRO(비행기유지보수)사업은 인천에서 대부분 처리하는데 과연 경북에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해 재고 해 볼 것을 주문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생태교란종에 대한 대처, 출산율 저하로 어린이집의 원아 수 감소 문제, 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관해 질의 하며, 특히 지방소멸 지역에 청년을 유치하고 인구를 늘려갈려면 '하드웨어'방면보다는 교육과 같은 '소프트웨어' 방면으로 접근을 해서 지방소멸의 시대에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 해 볼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산불피해복구를 위한 조림(造林)을 신경써서 해 줄 것을 당부했고, 또한 산불 피해 방지를 위해 보전산지여도 산에 임도(林道)를 내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한옥건립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지적하며, 한옥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한옥 모듈러주택 도입으로 인한 건축비 절감을 예시로 들며, 도청 신도시 내 한옥 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모색 및 검토를 당부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예산 집행률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록 중앙부처의 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수강료가 무료화 돼서 예산을 절감했다고는 하나, 사전에 예산 불용이 예측 가능했다면 감액조치를 하여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게 해야 함을 강조하며 재정의 효율성과 예산의 집행률 제고를 역설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커피박과 유형 미생물을 활용한 악취 저감 및 자원 재활용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성과를 거둔 사업인데 경상북도에 예산반영이 안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법적 지원근거가 없더라도 경상북도에서 선제적으로 나서 제도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해 볼 것을 주문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국비인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부서별 자체노력을 통해 불용예산과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것을 강조하며, 앞으로 경상북도가 예산 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 중간점검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함은 물론, 예산운용도 건전한 방향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윤근수/기자

경기도의회 'DMZ 생태평화관광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DMZ는 우리나라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경쟁력있는 관광자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는 지난 19일(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DMZ 및 접경지역의 생태적 가치발굴을 통한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시작과 함께 연구회 회장을 맡은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DMZ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뜻이 담겨있는 역사적 장소로, 이번 연구를 통해 미국의 그랜드캐니언, 프랑스 에펠탑 등이 연상되듯 대한민국 하면 DMZ생태와 평화관광이 연상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에서 숭의여자대학교 양정임 교수는 DMZ 접경지역의 환경분석, 지역별특성, DMZ 접경지역 관광상품, 국내외 생태·평화 관광자원화 사례 등을 보고했다.

보고 후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이번 중간보고 내용이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방향성에 대한 내용보다 문헌조사 위주로 이루어진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며 "향후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DMZ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현재 DMZ 활성화에 필수적인 요소인 DMZ 및 접경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도차원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앞으로의 연구에 DMZ 및 접경지역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정책 및 방안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양정임 교수는 "오늘 나온 유의미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검토 후 연구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는 회장인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을 비롯해 이채명(더불어민주당, 안양6), 정경자(국민의힘, 비례), 양우식(국민의힘, 비례), 강웅철(국민의힘, 용인8), 김철현(국민의힘, 안양2), 윤종영(국민의힘, 연천), 박상현(더불어민주당, 부천8), 김호겸(국민의힘, 수원5), 이서영(국민의힘, 비례) 의원, 연구수행자인 숭의여자대학교 양정임 교수 및 경기도 DMZ정책과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만식/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한미동맹 70주년 맞아 서울역사박물관 '6·25전쟁과 한미동맹' 특별전 관람

최호정 대표의원 "자유는 결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빈틈 없는 국가안보의 중요성 다시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소회 밝혀

23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소속의원들은 6.25 전쟁 73주년이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6·25전쟁과 한미동맹'특별전을 관람했다.

이날 관람에는 시의회 김현기 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 수석부대표 김길영 의원, 정무부대표 허훈 의원, 의안부대표 장태용 의원 등 원내대표단 의원들과 김규남 의원, 김원중 의원, 김혜영 의원, 유정인 의원, 이경숙 의원, 이새날 의원, 이효원 의원, 이희원 의원, 정지웅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전시를 둘러본 최 대표의원은 "한미동맹의 든든한 뒷받침 덕택에 대한민국은 전후 재건에 성공하고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며 "1953년 조인된 한미동맹은 한국 현대사에 있어 큰 축복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또, 한국전쟁 때 추위 속에서 피난길에 오른 서울시민들의 비참한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는 영상에 큰 관심을 보이며 "자유는 결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며 "빈틈없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원내대표단은 한국전 당시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세계 16개국에서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조그마한 신생국'을 지키기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한 젊은 영웅들에게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 대표단은 김용석 서울역사박물관장에게 "보다 많은 서울시민께서 전쟁의 참화와 잿더미 속에서 기적을 이룬 한국의 성취 그리고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의와 기여에 대해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이번 전시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오는 9월 24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리는 '6·25전쟁과 한미동맹' 특별전에서는 한국전쟁의 발발과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인 등 한미동맹의 형성과정과 6·25전쟁의 참화 등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진과 영상 등을 볼 수 있다.

또 김용배 전 육군참모총장 가족이 기증한 화랑무공훈장과 육군대장 정복 등 유물 등을 관람할 수 있다.

최광수/기자

충남도의회,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 연구활동 시작

충남도의회가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한 연구 활동에 착수했다.

도의회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 연구모임'(대표 김옥수)은 2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도립박물관 건립 필요성, 추진 전략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도립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 박물관 건립 동향과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도립박물관 건립 필요성과 특성화 방안, 건립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 등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연구모임은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를, 충남역사박물관 민정희 관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 등 6명의 충남도의원과 외부전문가, 향토사가, 충남도 관계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이귀영 백제세계유산센터장이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필요성'을, 이관호 문화체육관광부 학예연구관이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차별화와 특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 간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김옥수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충남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수집·연구·전시·보존·활용하는 충남도립박물관 건립이 충남도 민선 8기의 중요 현안으로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전남도, 자원봉사 문화 확산·체전 성공 개최 기원

전라남도는 23일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일상 속 자원봉사 문화 확산과 2023년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제3회 전라남도 자원봉사 박람회'를 개최했다.

'으뜸전남 자원봉사! 함께날자 감동체전!'을 주제로 열린 이날 박람회엔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 소영호 목포부시장, 지역대표 자원봉사기관, 봉사단체, 지역민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전남체육회와 전남장애인체육회가 2023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경기 종목 중 농구, 양궁, 보치아, 슐런 체험부스를 운영해 홍보했다.

또 성공적 체전 운영과 관람객 편의 제공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체전 성공 개최를 지원할 자원봉사자 모집도 함께 진행했다.

태권무와 전남영재드림오케스트라 등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막식과 다양한 자원봉사 홍보 및 체험부스, 부대행사, 재능봉사자 공연으로 운영된 박람회는 흥미있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밖에 22개 시군자원봉사센터와 기업, 기관, 대학교, 단체 등이 참여한 박람회 부스에선 마술체험, 두피분석체험, 장애인 인식개선, 심폐소생술, 헌혈, 탄소중립 실천 비누 만들기·반려식물 만들기, 천연염색, 캘리그라피, 재난정신건강 상담 등 30개 체험 부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문금주 부지사는 "박람회를 계기로 자원봉사의 나눔과 참여 정신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성공개최를 위해 전남 자원봉사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경선 부의장은 "남다른 사랑으로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도의회에서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형석 전남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박람회를 통해 자원봉사를 일상생활 문화로 정착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의 새 패러다임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0월과 11월 전남에서 개최되며 전남도자원봉사센터는 누리집을 통해 2023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박종배/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박류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 서울 가 50146 | 등록일 :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광고국:1899.9659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사 회 부: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홍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초구, 대입 수시설명회 열어... 학원 · 학교 입시정보 꿀팁

민간 교육업체와 학교의 대입 진학 전문가를 초청, 입시학원과 학교현장의 수시전형 정보 총망라

서울 서초구는 다음달 18일 수험생과 학부모의 대입 수시전형 궁금증 해소를 위한 '2024학년도 수시 합격드림 설명회'를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연다.

이번 설명회는 민간 교육업체 입시전문가와 지역 고등학교 내 대입 진학전문교사를 초청, 입시학원과 학교 현장의 대입 수시전형 정보를 총망라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재학생과 재수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초 맞춤형 수시 지원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설명회는 2부로 나눠 2시간 가량 진행된다. 1부는 입시전문가가 수시 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주제로 ▲지원 체크포인트 ▲지원방법 ▲작년 입시결과 분석 ▲대학별 입시전형의 변화가 미칠 영향 등에 대해 강의한다.

2부에서는 상문고 박창욱 교사가 2024 서리풀 수시지원 분석을 주제로 ▲지난해 대입 수시 지원 성향과 결과 분석 ▲수시 지원 시 고려 사항 등에 설명할 예정이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경우, 유튜브 '서초런TV'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고, 놓친 부분은 추후 업로드되는 다시보기 영상을 통해 반복 시청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방배교육지원센터에서는 다음달 19일부터 지역 내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전문 입시컨설턴트의 1:1 맞춤형 수시 컨설팅 신청을 받아 8월 말까지 상담을 진행한다. 컨설팅 신청은 서초구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감을 얻고,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응원한다" 고 말했다.

이흥수/기자

강남구, 구청장 등 고위 간부 참여하는 '청렴 방송 챌린지'

3월~11월까지 구청장 비롯 9명 참여...청렴 경험담 등 진솔한 내용과 전직원 퀴즈 참여로 청렴 문화 확산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3월부터 11월까지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참여하는 '청렴방송 챌린지'를 추진하고 있다.

청렴방송 챌린지는 사내 방송을 통해 간부직 공무원이 청렴에 대한 진솔한 생각과 의지를 직접 들려줌으로써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청렴 문화를 받아들이고 청렴 의지를 제고하고자 마련했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오전 9시에 구 간부들이 일일 방송 진행자가 되어 청렴 메시지를 직접 전달한다. 3월 조성명 강남구청장의 첫 방송을 시작으로 정헌재 부구청장, 4급 국장 등 9명이 참여한다. 간부들은 청탁금지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과 같은 관련 법령은 물론 공직생활 경험담, 청렴 노하우 등을 들려준다.

방송 끝부분에서 다음 진행자를 소개하고 당일 방송에서 소개한 청렴 주제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다. 매월 평균 1000여명의 직원들이 내부 게시판을 통해 청렴 퀴즈에 참여한다. 구는 퀴즈 참여도 등을 바탕으로 우수부서를 선정해 격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는 ▲청렴추진기획단 운영 ▲청렴수준 및 부패 취약분야 자체진단 ▲전 직원 맞춤형 청렴교육 ▲공공재정 부정수급 자체 점검 등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방송에서 직원들에게 "업무능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렴의 덕목을 갖춰야 진정한 공무원이라 할 수 있다"며 "변화와 노력을 통해 공직사회에 청렴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 고 당부했다.

정동희/기자

뜨거운 나눔의 열기…영등포구,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3년 연속 서울시 우수 자치구 선정

역대 최대 모금액 22억 8천만 원 달성…호우피해 모금 캠페인 높이 평가

영등포구가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평가 결과, 서울시의 3년 연속 우수 자치구 선정에 이어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우수 자치구 표창 수상의 쾌거도 달성했다고 밝혔다.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는 작년 11월 15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3개월간 진행됐다. 동절기 대표 모금사업으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구는 이번 사업으로 총 22억 8천만 원(성금 11억 2천만 원, 성품 11억 6천만 원) 상당의 성금·품을 모금했다. 이는 목표액인 19억 원을 120% 초과한 역대 최대 모금액이다.

특히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1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18개 전 동에서는 '호우피해 이웃돕기 모금 캠페인'을 적극 추진했다.

어려운 여건에도 이재민의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을 돕는 기부 행렬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이어졌고 총 8억 1,169만 원의 성금·품이 모였다. 성품은 즉시 이재민에게 배분됐고, 성금은 수해피해 정도와 사회보장 자격 수준에 따라 1,294가구에게 현금으로 지급됐다. 이는 민·관 협치 우수 모델로 손꼽히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구는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3년 연속으로 서울시의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으며, 사업 주관기관인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우수 자치구 표창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우수 표창은 총 모금액, 전년 대비 성금 증가율 등을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5개 자치구에만 수여된다.

쌀, 김치, 난방물품 등의 성품은 동주민센터와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저소득 주민에게 전달됐으며, 성금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저소득 아동·청소년 교육비, 긴급위기가구 생계비, 촘촘한 복지 돌봄망 구축을 위한 신규 복지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저소득 취약계층 1,211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가구당 10만 원)이 성금으로 이뤄졌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경기 불황 등 어려움 속에도 지역사회 곳곳에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덕분에 역대 최대 모금액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며 "모금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어르신, 장애인, 위기가구 등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영등포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박황신/기자

관악구와 함께하는 '1인생활 행복사전'제작·배포

오프라인과 온라인 동시 배부로 1인 가구 지원정보 접근성 강화

관악구가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삶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담은 관악구와 함께하는 '1인생활 행복사전'을 제작해 배포했다.

'관악구 1인가구지원센터' 소개로 시작하는 '1인생활 행복사전'은 주거 일자리, 안전, 건강 돌봄, 사회적관계망 4개 분야의 정보를 담아 총 37페이지로 제작됐다.

'주거 일자리' 분야에는 맞춤형 임대주택, 관악구 일자리 센터, 재난취약 홀몸어르신 가구 안전점검, 장애인 1인 가구 주거 편의, 행복 동행 프로젝트,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안전' 분야에는 선별관제 시스템과 CCTV LED 안내판, 안심 골목길, 여성 1인 가구 안전네트워크 등을 소개하고, '건강·돌봄' 분야에는 돌봄 SOS 센터, 2030 청년 마음 안아주기,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등을 수록하여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소개했다.

'사회적관계망' 분야에는 관악청년문화공간 신림동쓰리룸과 관악청년청, 고독사 예방 민관협력 사업 등을 소개하고 1인 생활에서 벗어나 사회적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과 사업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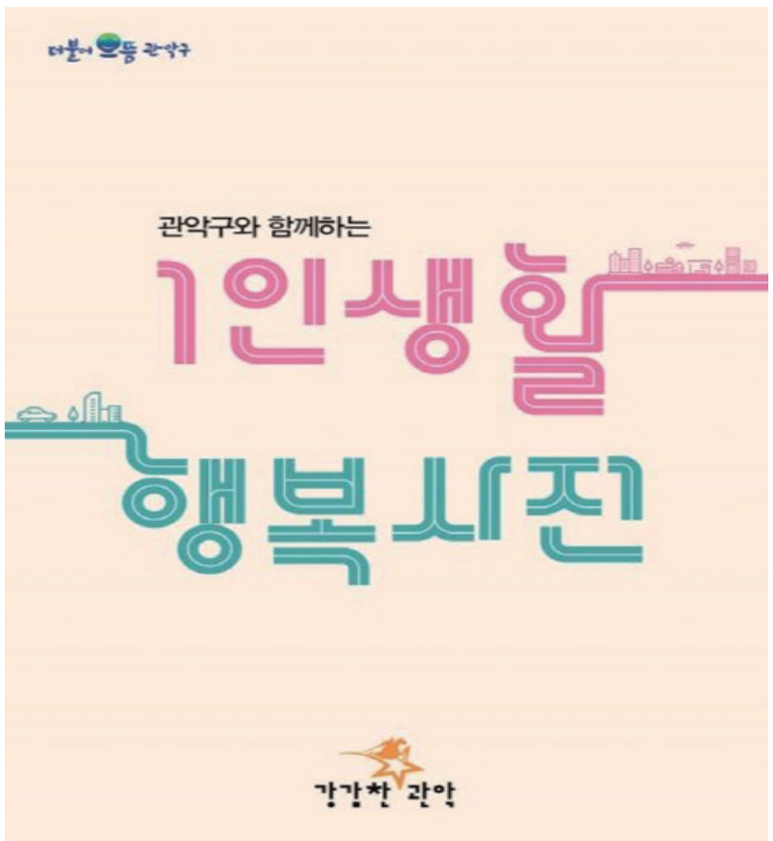
이와 함께 책자 마지막에는 '관악 1인생활 Tip'을 담아 관악구 주요 시설, 관련 기관 홈페이지, 복지 상담 전화 등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록했다,

'1인생활 행복사전'은 동 주민센터, 관악구 1인가구지원센터, 관내 복지기관 등과 온라인 관악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편, 구는 총 39개 사업, 134억 원을 투입하는 '2023년 관악구 1인 가구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인 가구와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1인생활 행복사전'이 관악구 1인 가구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와 동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주민이 주인 되는 생활자치 도시 성북' 20개 전 동 주민총회 성료

성북구 주민총회, 지난달 31일 길음1동부터 이달 22일 정릉1동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성북구는 각 동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2024년 주민자치계획을 수립·결정하는 주민총회를 20개 전 동에서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성북구 주민총회는 지난달 31일 길음1동부터 이달 22일 정릉1동을 마지막으로 1개월간에 걸쳐 진행됐다. 주민자치회 운영 보고, 성북형 주민자치 공동추진 협약, 사업 계획에 대한 주민 숙의 과정 및 주민 투표, 주민자치계획 선포 순서로 진행되며 각 동에서 준비한 공연 등이 함께 펼쳐져 마을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다.

특히 20개 모든 동 주민총회에서 주민자치회는 구청 및 동주민센터와 함께 '성북형 주민자치 공동 추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상호 협력을 통해 주민자치 활동을 성실히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주민이 행복한 생활 자치 구현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성북형 자치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이번 성북구 주민총회는 동별 특색있는 의제 발표와 온·오프라인 사전투표로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행사가 됐다. 주민총회 사전투표 및 현장 투표에 약 9,800여 명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성북형 주민자치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동별로 접수된 약 500여 건의 지역의제 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주민총회를 통해 총 159건이 선정됐다. 8억 원 규모로 2024년도에 추진할 주민자치계획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선정했다. 각 동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주민자치계획은 '성북형 주민자치 활동 지원사업', '주민자치 동 단위 계획형 사업' 등으로 연계해 2024년에 실행할 예정이다.

2024년 동별 주요 사업으로는 ▲성북동 골목 스토리, ▲공유 공간을 활용 추억의 영화 상영, ▲동선나누장-나도 되살림 환경, ▲쓰레기 줄이기 마을기, ▲지구살리기 프로젝트-행동하는 우리, ▲사랑해요 성북천, ▲전통 한방차 만들기, ▲세대가 함께 소통하는 전통문화 행사, ▲친환경 EM 주방 세제 만들기, ▲정릉천 살리기, ▲정릉4동 한마당 축제, ▲봄이 오나 봄, ▲길음2동 장기자랑 한마당, ▲종암동 에코피아, ▲월곡1동 마을학교, ▲월곡2동 어르신 노래자랑, ▲따뜻한 한 끼를 먹어요, ▲골목을 깨끗하게 분리수거 안내판 설치, ▲인정이 꽃피는 마을축제, ▲동네 둘레길 조성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주민자치계획 사업을 위한 마을의제 발굴과 주민총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동 주민자치회 관계자 및 주민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성북형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경기도 김동연, 7월 22일 수원에서 도민 맞손토크. 참가자 1천400명 모집

도, 7월 22일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도민 초청 '한여름밤 맞손토크'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월 22일 오후 7시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민선 8기 2년차를 맞아 '한여름밤 맞손토크'를 열고 도민과 만난다.

경기도는 맞손토크 참가자 1천400명을 7월 10일 오후 5시까지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모집한다.

이번 맞손토크는 민선 8기 2년차를 맞이해 경기도 인구 1천400만을 상징하는 도민 1천400명과 '기회를 말하다'를 주제로 자유롭게 소통하는 장으로 꾸며진다.

박찬민 전 SBS 아나운서와 딸 박민하 국가대표 사격선수가 함께 사회를 맡고 가수 백지영·스윗소로우, 국악 연주가 김주홍과 노름마치가 출연해 다채로운 문화공연도 즐길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들은 경기도 누리집 또는 경기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내된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 23일부터 현장에서 직접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이동민원실 '파란31 맞손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31개 시·군 전역을 1대의 트럭과 1대의 버스가 각각 경기북부, 남부를 돌며 민원과 '도지사에게 바라는 점' 등을 접수하고 있다.

'파란31 맞손카페'에서 도민이 작성한 의견은 22일 '한여름밤 맞손토크' 개최 시 도지사에게 직접 전달되며, 정책 반영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이원일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이번 행사는 민선 8기 2년 차를 맞이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향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 도민 누구든 만나 소통하고 경청하겠다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를 담았다"라며 "도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회수도, 경기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화성시, 제73주년 6·25전쟁 기념식 개최

화성시가 25일 6.25전쟁 참전용사들을 초대하여 제73주년 6.25전쟁 기념식을 개최했다.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보훈단체장과 보훈가족, 화성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도 시의원 유관기관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제51보병사단 군악대의 경건한 연주로 시작하여 표창수여, 6.25 영상물 상영, 감사편지 낭독, 소년소녀합창단의 민요, 6.25 노래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식장에는 특별히 청림중학교 학생들의 참전용사 감사편지가 전시되고 청림중학교 대표 구연아 학생의 감사편지 낭독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기념사를 통하여 "우리 시는 6.25 전쟁에서 보여준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앞으로도 보훈정책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경기문화재단, 관광과의 협력을 통한 경기도 지역문화자원 활성화

경기문화재단, 2023년 '융합과 상생' 키워드로 GGCF 정책라운드테이블 개최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유인택) 은 올해 ' 융합과 상생 ' 을 키워드로 삼아 GGCF 정책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한다 . '21 년 ' 전환 ', ' 22 년 ' 공존과 협력 ' 시리즈에 이어 올해는 문화예술과 밀접한 유관 분야와의 연계와 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집중 탐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5 월부터 9 월까지 총 3 회 개최하는 2023 년 라운드테이블은 경기문화예술의 '기회' (콘텐츠), '혁신' (관광), '미래' (글로벌 , 국제교류) 를 테마로 세부 주제를 선정해 논의하며 , 지난 5 월 8 일 '경기문화예술의 기회 , 문화예술 + 콘텐츠' 를 통해 첫 문을 연 데 이어 , 경기도 지역문화자원과 문화유산의 관광 연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2 회 '경기문화예술의 혁신 , 문화예술 + 관광' 을 개최한다 .

GGCF 정책라운드테이블 ' 융합과 상생 ' 2 회 '경기문화예술의 혁신 , 문화예술 + 관광' 에서는 경기에코뮤지엄 , 경기옛길 등 경기도 대표 지역문화자원 · 문화유산의 도민 인지도 제고 , 활성화를 위한 관광과의 협력 가능성 및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지역문화자원 · 문화유산의 관광 연계 통한 지역 활성화 사례' 관련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 재단 담당부서에서 경기에코뮤지엄과 경기옛길 조성 현황을 공유하며 , 이후 유인택 대표이사를 비롯해 구달용 경기관광공사 국내마케팅팀장 , 박혜영 화성시 생태관광협동조합 상임이사 , 황순주 경기문화재단 정책실장 , 심현철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실 책임 , 노현균 경기문화재단 문화유산팀장이 종합토론을 통해 경기도 지역문화자원과 관광 분야의 협업 가능성과 그 효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숙의의 장을 만들 예정이다 .

GGCF 정책라운드테이블 ' 융합과 상생 ' 은 모든 회차 종료 후 재단 누리집 및 공식 유튜브 채널에 종합토론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이다 .

또한 , 정책라운드테이블의 결과집 발간 (11 월 예정) 을 통해 논의된 내용들에 대한 아카이빙과 주요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배포 등 생산된 정책 콘텐츠의 공유와 확산을 지속 도모할 예정이다 .

최만식 /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스웨덴·독일 기업유치 나선다

고양시, 2023 한-독 비즈니스 투자 서밋 참석…국제적 투자협력 강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경제자유구역 기업유치와 한-독 비즈니스 투자협력 강화를 위해 해외출장에 나선다.

이 시장은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스웨덴 스톡홀름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독일 베를린 '메르세데스-벤츠 아레나'를 방문하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한-독 비즈니스 투자 서밋'에 참여한다.

이 시장은 26일(현지시각) 스웨덴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를 방문하여 전 시스타사이언스시티 대표와 면담을 갖는다.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지역경제 성장엔진으로 산·관·학 협력모델의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는 연구도시다. 경제자유구역지정 추진,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역발전 전략, 스웨덴의 우수기업 유치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주스웨덴 대사와의 공식면담을 통해 향후 스웨덴기업의 고양시 투자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27일 독일 베를린 메르세데스-벤츠 아레나를 방문하여 운영상황을 살펴본다. 메르세데스-벤츠 아레나는 지난해 고양특례시-CJ라이브시티와 'K-컬처 클러스터 조성·외자유치 활성화'업무협약을 맺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 AEG가 운영하는 스포츠문화 복합시설이다. 향후 고양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운영, 한류문화 중심도시 육성, 고양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활성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28일 이 시장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한-독 비즈니스 투자 서밋에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한-독 비즈니스 투자 서밋은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독일 상공회의소가 공동개최하는 행사이다. 이 시장은 발표자로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하여 고양특례시의 스마트도시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독일 프랑크푸르트 상공회의소장과 단독면담을 통해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조성계획을 소개하고 독일 기업 투자유치 전략을 논의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최근 2030 부산엑스포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열성적인 성원과 관심을 보내고 있다"며 "고양특례시도 MICE 도시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데 동참하고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글로벌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한-독 비즈니스 투자 서밋을 계기로 한국-독일 기업간 협력, 투자활성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수원7개 공공기관,시민과 황구지천 하천정화 첫 협업

불볕더위에도 쓰레기 줍기 등 자원봉사 펼쳐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수원문화재단, 수원청소년청년재단, 수원시정연구원, 수원도시재단, 수원문화원, 수원시국제교류센터 등 7개 공공기관이 첫 협업으로 시민과 함께 황구지천 하천정화에 나섰다.

7개 공공기관은 24일 오전 10시 호매실지구 어울림마당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해 유준숙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김현광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이병규 수원청소년청년재단 이사장,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최영화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김신교 국제교류센터장 등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V-day 하천살리기 범시민 하천정화'에 나섰다.

이날 수원시민과 해병전우회 등 자원봉사자, 공공기관 임직원 100여 명은 2개 조로 나눠 어울림마당에서 황구지천을 따라 쓰레기 줍기, 유해식물 제거, 황구지천 유래와 보전 가치 교육 등을 실천했다.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돌았던 이날 불볕더위 속에도 조별로 나눠 황구지천 산책로와 하천 안 쓰레기 줍기와 천변 유해식물을 제거하면서 비지땀을 흘렸다.

최영화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은 "많은 공공기관과 협업으로 시민과 함께 하천정화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다"며 "자원봉사를 통해 시민과 공공기관과의 거리를 좁히고 친밀도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V-day 하천살리기 범시민 하천정화'는 수원천, 서호천, 황구지천, 원천리천 등 수원 4대 하천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최만식/기자

용인특례시, 지상작전사령부에 '물 재이용시설' 시스템 구축 착수

17억 1900만원 예산 투입해 올해 12월 준공 목표…MBLM 공법 적용해 물 재이용 효율 높여

용인특례시가 26일부터 처인구에 위치한 지상작전사령부에 '물 재이용시설(중수도)' 설치 공사를 진행한다.

시와 군(軍)은 '물 재이용시설'을 통해 단수 등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물 부족 등의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對備), 상·하수 사용량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와 지작사는 지난 2021년 11월 시설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17억 1900만원(국비 12억 300만원, 시비 5억 1600만원)을 투입해 오는 12월까지 지작사 내에 하루 53톤을 처리할 수 있는 중수도 시설을 설치한다.

시설물은 준공 이후 15년간 지작사에 무상으로 양도되며, 지작사는 이 기간 운영·관리 책임을 진다.

시는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MBLM(Micro Bubble Line Mixer)' 공법을 적용해 공사를 진행한다. 이 공법은 마이크로 단위의 오존(O3) 기포를 발생시켜 물을 정화하는 최신 기법으로, 미량의 오염물질이나 악취 유발 물질을 제거하고 대장균을 살균할 수 있다.

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용수는 곧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 않고 '물 재이용시설'에서 정화작업 후 재사용된다. 정화된 용수는 청소와 화장실 용수, 조경용수, 세척·살수용수 등으로 활용한다. 음용수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의 지원으로 설치되는 중수도는 대한민국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정책 중 하나로 물 재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군사시설 내 잡배수를 함께 처리해 물 순환구조를 개선하고, 수자원도 확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성남시, 다문화가족 자녀 예체능 학원비 월 최대 10만원 지원

연말까지 5개월간 지급…100명 신청받아

성남시는 다문화가족 자녀에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간 월 최대 10만원의 예체능 학원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예체능과 관련한 학원비 부담을 덜어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의 하나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정,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에 해당하는 학생이다.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학교밖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학원비 지원 과목은 음악, 미술, 태권도 등 예체능 분야와 디자인, 이·미용, 요리 등 직업기술 분야다.

성남시에 등록된 학원에서 해당 과목을 수강해야 지원한다.

시는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7월 14일까지 대상자 100명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에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시청 여성가족과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된다. 해당 과를 방문 접수해도 된다.

성남지역 다문화가족은 5867가구이며, 초·중·고등학생 자녀는 1988명이다.

영유아 1450명까지 합치면 다문화가족의 19세 이하 자녀는 총 3438명이다.

시는 이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중원구 금광2동)와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수정구 수진동)를 통해 한국어 수업, 자조모임, 사례관리, 통·번역 서비스 등을 펴고 있다.

이성율/기자

성남시 Seongnam City

경기도, 연간 120만 원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 1천 명 모집

모집 기간 : 7월 1일 오전 9시 ~ 7월 17일 오후 6시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 1천 명을 7월 1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 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3천 명으로 4월 1차 모집에 1만 2천 명을 모집했고, 7월 2차 모집에 1만 1천 명, 11월 3차에 1만 명씩 각각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개발, 건강관리, 가족 친화 등 다양한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7월 17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8월 18일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 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이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중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경기도는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서류제출 미비 등 단순 실수로 인해 혜택을 못 받는 청년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서류 보완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글로벌 도시 인천 이끌'아시아 도시포럼', 오는 9월 개최

인천을 중심으로 글로벌 도시 간 역량 결집 위한 글로벌 포럼

인천광역시는 오는 9월 21일 송도컨벤시아에서 '2023년 제1회 아시아 도시 포럼'(Asia Urban Forum, AUF)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의 민선8기 시정 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 조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인천을 중심으로 영향력 있는 도시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글로벌 지식공유, 비즈니스 협력·교류 등 실질적인 연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개최되는 글로벌 포럼이다.

우선 시는 인천이 글로벌 허브 도시 도약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산·학·연·관의 총역량을 결집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도시 연구기관인 유엔(UN)해비타트한국위원회를 비롯 인천관광공사,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6월 22일 아시아 도시 포럼 착수보고회를 갖고 포럼의 구체적 추진방향과 행사 운영 계획을 논의했으며, 향후 관내 국제기구, 대학, 기업 등이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

포럼은 '도시의 시대, 아시아의 회복과 번영'을 주제로, 기조연설, 아시아 시장 간 특별대화, 글로벌 도시 전문가 세션, 미래세션(혁신기술, 디지털 헬스케어, 친환경 에너지, 포용적 도시 등 4개 세션)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시아 도시 시장 및 고위 관료, 도시전문가, 관련 기업, 청년,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주요 인사들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으로 9월 21일에는 브이아이피(VIP) 네트워킹 만찬과 문화공연, 9월 22일에는 브이아이피(VIP) 산업시찰을 각각 추진해 정책결정자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우수한 산업인프라를 적극 소개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천만도시 인천 프로젝트, 제물포르네상스 개발계획 등을 적극 홍보해 아시아 권역 내 신(新) 인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류윤기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인천이 아시아 도시들의 동반성장 모델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인천시 산학연관의 상생발전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관내 유관기관, 기업 등도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남/기자

그린웨이 따라 건강이 쑥쑥!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탄소중립' 앞장

시흥시가 시민의 건강한 삶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자전거는 개인의 건강 증진뿐 아니라 탄소중립의 가장 대표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1.2% 수준인 자전거 교통 분담률을 10%로 끌어올리면 국가탄소감축목표의 42%를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반드시 정책적인 노력이 기반 돼야 한다. 자전거 천국이라 불리는 네덜란드에서는 일찍이 1990년대 초부터 자전거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출퇴근 시 자전거 이용자의 세금 환불, 편의시설 확충 등의 정책을 통해 자전거 이용을 장려했다.

프랑스정부는 최근 20억 유로(3조 6,700억 원) 규모의 자전거 인프라 확장 투자 계획인 랜 벨로(Plan Velo)를 발표하기도 했다. 오는 2030년까지 자전거 전용 도로망을 현재의 2배인 10만km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전거도로는 모두 2만5,249km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75%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뒤섞이는 겸용도로로 확인됐다. 차도 · 인도와 별도로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는 채 15%가 못 됐다.

시흥시, 5년간 자전거도로 118.3km 연장

시흥시는 시민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고 자전거 친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08년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긍정적인 것은 시흥시는 택지개발이 많은 도시라는 거다. 시는 택지 개발에 맞춰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자전거 도로를 255km에서 총 118.3km 연장했다.

특히 시흥 은계지구와 배곧, 시화MTV 등 개발이 활발한 지역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 시흥시 관내 자전거도로는 총 112개 373.8km로 나타나고 있다.

정왕역과 월곶역에는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며 점차 자전거를 늘려나가고 있다. 지난 2021년 4,228개에서 올해 4,700대로, 연 평균 380대가 늘어났다. 올해부터는 전기자전거를 도입해 시민의 선택권을 확장한다.

'안전이 먼저' 전 시민 자전거 보험 등록

시흥시는 지난 2015년부터 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왔다. 매년 갱신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있다. 시흥시에 주소를 둔 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전거 사고와 관련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면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상관없이 해당한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500만원(15세 미만 제외) ▲후유장애 최대 5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10~3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 지원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이다. 시민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도 중복지원 가능하다.

자전거, 취미 아닌 생활로 '캠페인' 전개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자전거를 운동이나 취미용이 아닌,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

시흥시 역시 일상에서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연계 지점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14만 명가량이 근무하고 있는 시화국가산업단지에 조성된 자전거도로의 편의를 개선하고, 근처 정왕역 자전거 대여소의 시간을 평일 7시부터 21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근로자 출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올해는 정왕역 주변으로 자전거 거치대 110면을 추가로 설치한다. 역사 주변 방치 자전거는 주기적으로 정비하며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함께 챙긴다.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병행한다. 시는 지난 4월 자전거의 날을 맞아 오이도역 광장에서 캠페인을 열었다. 이날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안전모를 선착순으로 나눠주고, 시흥시 자전거 보험 및 공영자전거 대여소에 대해 시민에게 안내하기도 했다.

시흥의 그린웨이, 자전거 탄 풍경

시흥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해 시흥시만의 자전거길, 그린웨이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시흥의 대표 관광지인 갯골생태공원을 출발해 물왕호수까지 이어지는 7.5km 코스다.

3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호조벌을 양 옆에 끼고 길게 뻗어있는 농로를 가로지르면 계절감이 온몸으로 느껴진다. 이 시기에는 조선 전기 농학자 강희맹이 명나라에서 연꽃씨를 가져와 조성된 연꽃연못인 관곡지와 연꽃테마파크에 피기 시작하는 연꽃무리도 볼거리다. 자전거를 타고 물왕호수까지 도착하면 40분가량이 소요된다.

물왕호수에는 라이딩을 끝내고 허기진 배를 달래줄 맛집이 빼곡히 들어서 있으니 이번 주말, 눈과 입을 만족시키는 시흥시 그린웨이로 건강 챙기러 가보는 건 어떨까.

신우용/기자

안산시, 6·25전쟁 제73주년 기념행사 열어

"영웅의 제복'착용, 참전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더해

안산시는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참전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6·25전쟁 제7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안산시 보훈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이민근 시장을 비롯해 50여 명의 참전유공자와 국회의원, 도·시의원, 보훈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및 묵념 ▲화랑무공훈장 전수 및 보훈유공자 포상 ▲기념사 및 인사말씀 ▲기념공연 ▲6·25 노래 및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 6·25참전 유공자들이 국가보훈부에서 전달한 '영웅의 제복'을 입고 참석해 참전영웅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더 깊게 전달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오늘날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신 호국영령의 헌신과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지키고 명예를 드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이천시, 뚜르드몽드 관고 두 번째 여행

이천시 관고동평생학습센터는 지난 16일 국외로 떠나는 랜선 여행 미리 떠나는 독일 소도시 여행을 시작으로 22일에는 사전 신청자 50여명 대상으로 발칸유럽여행 크로아티아 한달 살기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동유럽 문화전문가 김철민 교수(한국외대)는 벌거벗은 세계사, 세계는 지금, 세계테마여행등에 출연한 바 있어 대중에게 친근한 분으로 발칸 유럽의 문화사적 배경을 종교사 중심으로 소개하며 크로아티아를 이해하기위해 로마제국과 베네치아 문명을 소개하는 등 마을 축제와 거리 공연, 유럽의 밤의 문화를 소개하며 낮과 밤을 즐기며 한달 살기에 적합한 숙소, 교통 먹거리 등 다양한 정보를 소개했다.

프로그램종료 이후 학습자들은 좋은 교육을 기획해준 관고동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향후에도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어 달라며 감사 인사와 함께 최고의 관고동이라는 칭찬과 격려를 전해주었다.

한미연 관고동장은 긴 시간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집중하는 학습자들의 모습에 감탄하며 평생학습이 주민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생활에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성율/기자

안양시, '위대한 헌신에 존경과 감사 ' 6.25전쟁 제73주년 행사 진행

25일 오전 11시 안양시청 별관 1층에서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안양시지회 주관 '6.25전쟁 제73주년 행사'가 열렸다.

안양시는 '위대한 헌신에 존경과 감사'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 6.25참전유공자와 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사는 6.25전쟁 영상 상영, 묵념, 기념사, 수도군단 노래공연, 6.25노래 제창,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수도군단 소속 성악병들은 이날 6.25참전유공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노래로 전해 행사를 더욱 뜻깊게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행사에 참석한 6.25참전유공자 한분 한분께 인사하며 "위대한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기념사로 "희생으로 열어주신 평화와 번영의 길을 더욱 발전시켜 다음 세대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시장 "희생으로 열어주신 평화·번영의 길 발전시켜 다음 세대에 전하겠다"

한편,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안양시지회는 부대행사로 시청 별관 1층 로비에 6.25 전쟁의 참혹한 참상을 담은 사진 45점을 전시했다.

아울러, 시는 안양시 6.25참전유공자 65명 중 56명이 90세 이상의 고령임을 고려해 1층으로 행사장을 마련하고 직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지원했다.

신유용/기자

안양시

'대구로페이' 7월 3일 드디어 출시!

만 65세 이상 희망자, 실물카드 병행 발급

대구광역시는 모바일 기반의 대구사랑상품권 '대구로페이'를 7월 3일부터 출시하고 월 50만 원까지 7%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 2월 대구광역시가 전자상거래 확대, 모바일 기반의 전자결제서비스 수요 증가 등 변화된 디지털 상거래 환경을 반영하고, 시민생활종합플랫폼 '대구로'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대구로페이' 전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대구로페이'는 대구은행 모바일 앱 IM#에서 충전 가능하며, 대구로택시를 비롯한 대구로앱에서의 사용은 물론이고, 삼성페이와 QR을 통해 학원, 병원, 슈퍼마켓 같은 다양한 장소에서 현장 결제도 가능하다. 기존 대구행복페이는 충전 및 발급이 중단되고 충전 잔액은 대구로페이로 이전 사용하거나 기존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또한, '대구로페이'가 모바일 기반이라는 특성 때문에 디지털 약자를 위한 지원 대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어왔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1958.12.31. 이전 출생자),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물카드를 발급한다.

실물카드는 7월 17일부터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IM# 앱, 영업점, ATM, 키오스크 등에서 충전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2023년 하반기부터 대구시로 편입될 군위군민의 편의 제고를 위해 군위군 읍면 단위 이동은행(무빙뱅크)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대구로페이' 발급 및 이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종화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대구로페이' 발행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정책적 방향성을 담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과 관심으로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범군민 유치위원회, 사업추진 반대 현수막 철거!

'양수발전소 영양군 유치를 위한 범군민 유치위원회'는 6월 23일, 영양 관내에 게시된 양수발전소 추진 반대 현수막 20여개를 철거했다고 밝혔다.

금일 현수막 철거는 '양수발전소 반대 추진위원회'에서 영양군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결정되어 실시했으며, 사업대상지인 일월면 용화리 일대에 게첨된 반대 현수막은 6월 24일 용화1리 주민들이 직접 철거했다.

반대위에서는 지난 4월 24일, 영양군이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면서 사업추진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며, 사업대상지인 용화1리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유치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하지만 영양군과 범군민 유치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간담회를 비롯한 개별 접촉을 통해 양수발전소에 대한 필요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위 측과 극적인 타협을 이끌어냈다.

특히 범군민 유치위에서는 양수발전소 유치신청서 제출 마감시한인 6월 30일을 앞두고, 반대위 측의 협조로 치열한 양수발전소 유치 경쟁에도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봉철 상임의장은 "최근 범군민 서명운동과 주민여론조사를 통해 양수발전소 유치에 대한 군민들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사업대상지 주민들 간의 찬반 의견이 나뉘어져 마을 내 화합이 이뤄지지 않아 고민이 많았으나, 이번 결정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며 남은 기간 유치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오도창 영양군수도 "양수발전소 유치에 큰 결단을 내려준 용화1리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제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전군민의 단합이 이뤄진 만큼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9월 발표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반드시 양수발전소를 영양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범군민 유치위에서는 양수발전소 유치신청서 제출 이후에도 9월 발표 때까지 릴레이 캠페인을 비롯한 각종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남해군, 원스톱 관광플랫폼 구축 본격화

숙박·음식점·관광지 등 예약 결제 한 번에!…착수보고회 개최
장충남 남해군수,"플랫폼을 통해 축적한 빅데이터 활용, 관광정책 수립
☞ 남해관광의 새로운 전기 마련"

민선8기 남해군 공약사업인 '관광사업 공동광고플랫폼 구축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남해군은 지난 23일 원스톱 스마트관광을 실현할 남해군 원스톱관광플랫폼 구축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소프트웨어(SW) 구축에 관한 기술적인 구조와 더불어 플랫폼 콘텐츠 구성 등 관련 실무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되었다.

남해군 원스톱관광플랫폼은 모바일 클릭 한 번으로 남해군의 관광정보와, 숙박시설, 음식점, 레저 등의 예약 및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남해를 찾는 관광객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만족스러운 남해여행을 즐길 수 있다.

또한 관내 관광 사업자들의 기존 대형 예약·결제 플랫폼 이용료를 연 매출 대비 10~15% 부담하던 것을 자체 플랫폼 구축으로 이용료를 2% 대로 절감할 수 있어 외부 숙박, 검색 등 플랫폼 홍보 비용 부담 최소화 및 통합 광고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플랫폼은 6월 개발 착수를 시작으로 7월에는 관광사업체 사업 설명회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지속적인 의견 공유, 11월까지 시범운영 및 홍보를 거쳐 12월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정식 오픈할 계획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플랫폼 구축으로 남해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 및 관내 관광사업체의 홍보비용 절감과 통합 광고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또한 "플랫폼을 통해 축적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남해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준/기자

남해군

영덕군, 창수면 가산1리 경로당 준공식 개최

영덕군은 지난 23일 김광열 영덕군수, 손덕수 군의회 의장과 의원, 황재철 도의원, 관계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수면 가산1리 마을회관 겸 경로당 준공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5월에 착공해 11월 준공한 가산1리 경로당은 주민과 노인회 회원들의 숙원사업으로, 사업비 3억 6,000여만 원을 투입해 110m²의 1층 구조로 조성됐다.

가산1리 권선종 이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내빈 소개,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 축하 인사, 테이프 컷팅,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가산1리 노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군수님과 영덕군의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소가 될 경로당을 준공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새로 지은 쾌적한 경로당에서 이웃과 대소사를 의논하고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부산시, 마약류 폐해 심각성 알린다… 폐해 예방 주간 운영

6.26.~30. 세계마약퇴치의 날(26일) 맞아 마약류 폐해 예방 주간 운영
지난 26일 14시, 유관기관 합동 마약류 폐해 예방 대시민 캠페인 전개
29일 14시, 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심포지엄'개최

부산시는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를 「마약류 폐해 예방 주간」으로 운영하고, 이 기간 마약류 폐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폐해 예방 주간은 '세계마약퇴치의 날(6.26.)'을 맞아 최근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 중인 마약류 중독의 심각성을 알려 마약류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 기간,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최창욱)와 함께 청소년 마약 확산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심포지엄과 캠페인, 마약류 폐해 알림 공모전 등을 추진한다.

먼저, 지난 26일 오후 2시, 부산역 일대에서 구·군 보건소,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지방식약청 등과 함께 마약류 폐해를 알리는 대시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특히, 마약에 누구든지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펜타닐 캔디, 대마 음료 등 일상 속으로 파고든 마약을 찾는 퀴즈 행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9일 오후 2시, 부산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마약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린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뇌발달 측면에서 살펴본 청소년 마약 중독', '청소년 마약예방과 회복을 위한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역할 제안' 등 청소년 마약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청소년 마약 예방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또한, 마약류 폐해 알림 공모전도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5월부터 진행해 온 이 공모전에는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작 중 심사를 통해 대상 1팀, 우수상 1팀, 입선 2팀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마약류 폐해 알림 광고 등의 컨텐츠로 사용될 계획이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최근 마약류 중독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이번 예방 주간을 계기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길 바라며, 마약 없는 안전하고 밝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우리시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송종진/기자

경주 10대 뉴브랜드 '청년 화랑캠프' 순항 중

경주화랑마을이 '경주 10대 뉴브랜드 전략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2023년 경주시 청년 화랑캠프'가 인기몰이 중이다.

26일 경주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3회차까지 진행된 이번 캠프는 매회 모집정원 30명을 모두 채워 총 90명이 참가했다.

화랑캠프는 청년들의 취업에 필요한 역량강화 힐링 캠프로 당일형 4시간 프로그램이다.

18세 ~ 34세의 경주시 거주 청년들이 대상이다.

취업컨설팅(면접기법, 1분스피치, 이력서 작성법)에 관한 교육 및 공기업 인사 담당 현장 전문가 특강 뿐 아니라, 화랑도 체험활동(국궁 등)과 공예(카드지갑 제작)체험도 진행된다.

오는 8월 10일 열릴 5회 차 캠프 참가자를 현재 선착순 모집 중이다.

이번 회차는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인사채용 담당자가 특강을 진행할 예정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나 공기업에 지원할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신청 방법은 화랑마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지난 캠프에 참가했던 한 대학생은 "올해 졸업반이라서 난감한 마음이 컸는데 화랑캠프에서 배운 이력서 작성 방법과 면접 시 대응방법 등 배워 많은 도움이 됐다"며 "체험활동으로 스트레스도 해소됐고 자신감도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랑마을 성현진 촌장은 "경주 10대 뉴브랜드 전략 사업인 청년 화랑캠프에 참여한 청년들이 취업을 위한 역량강화와 힐링을 통해 꿈이 현실로 실현돼 더욱 행복한 경주시 청년들이 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부산시, "부산의 바다와 수산물 안전관리에 365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시민과 수산업계 불안감 해소코자 전 직원 합심해 모든 행정 역량 투입해 대응 중

부산시는 시민의 건강과 먹거리 불안 해소를 위해 한층 까다롭고 촘촘한 방사능 검사 등을 통한 수산물 먹거리 안전관리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 터널 설비를 시험 운전하고 있으며, 오늘(26일) 또는 27일 이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른 것이다.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대책본부'를 지난 2월부터 확대 개편하고 시민과 수산업계의 불안감을 해소코자 전 직원이 합심해 모든 행정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 해수 방사능 측정 지점 확대 ▲ 수산물 검사 건수 상향 및 심층분석으로 안전성 확보강화 ▲ 해수와 식품 방사능 측정 결과 투명 공개 ▲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행사, 시식회 등 추진 ▲ 수산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범위를 넓히고 검사 주기를 단축할 장비.인력 확충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 수산물 생산자 실무협의회 구성

구체적으로, 시는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증대로 수산물 소비는 감소하고 수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어업인들의 생계 위기감 고조가 예상됨에 따라 어업인 동향파악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수산물 생산자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부산시, 7개 수협, 해조류 및 양식 관련단체, 어촌계장협의회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는 원전 오염수 방류 전후 단계별로 어업인들의 출어 동향 및 수산물 산지가격 추이 등을 공유하고 어업인들의 요구사항 및 의견을 수렴해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 정부와 연계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전문가 초청 대시민 토론회 개최

또한, 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사)부산수산정책포럼 주관으로 '우리바다, 우리식탁 안전한가?'를 주제로 전문가 초청 대시민 토론회를 오는 7월 11일 오후 2시 벡스코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원자력, 수산, 해양, 언론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추진

이와 함께, 시는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사업으로 매월 시식회(2회)를 겸한 직거래장터(3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오늘(26일) 10시에는 어업인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를 초청 수산물 안전관리 홍보 및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에 대한 정책 제언을 자문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주관으로 시행되는 각종 판매행사에도 지역특화 수산물 할인행사를 연계 추진을 통해 수산물 소비촉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 유통 단계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시는 시민들이 건강과 먹거리에 대해 불안해 하는 일이 없도록 수입(생산), 유통 단계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연구 검사기관, 구(군)과 협업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사실로 어업인 및 수산관련 종사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및 유통 이력관리 등 특별단속을 통해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수입 단계에서는 각 건 별에 대해 방사능 검사가 이뤄지며, 생산 단계에서는 위판장과 양식장 등에서 시료를 수거하고, 유통 단계에서는 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수거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부산시를 포함한 7개 기관에서 실시한 수산물 방사능 분석 결과를 언제, 어디서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부산시 누리집에도 이를 공지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도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를 통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 해소를 위해 어업인 및 유통 관계자에게 직접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고 수산업계의 고충과 요구사항을 청취하며 소통하고 있다.

또한, 해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4,000⇒8,000건) 시행하며, '수산물 안전 국민 소통단','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 운영과 누구나 방사능 검사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메일링 서비스'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안전하고 청정한 부산 수산물 공급을 시정의 우선순위로 두고, 우리 시민들의 불안 해소와 수산업계의 피해 우려가 없도록 최고 수준의 검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께서도 부산시와 정부를 믿고 수산물 소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송종진/기자

경북도, 국토부와 신규 국가산단 성공조성 및 지역발전 협력 논의

26일 현안회의 개최, 국가산단 성공조성 상생협약 체결

경북도는 26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국토교통부와 경북도간 신규 국가산단 성공 조성과 지역발전에 관한 현안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 실국장,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경북도 관계 실국장, 주낙영 경주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손병복 울진군수, 국가산단 시행자인 이한준 LH 사장,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 등이 함께 했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의 국가산단 조성 지원계획, 박동선 LH본부장이 경북 국가산단 조성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 후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의 지역 현안 건의와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이해 신규 국가산단 성공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원희룡 장관이 직접 지역을 방문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국가산단의 성공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신속한 후속조치로 2025년 하반기에 반드시 착공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구경북 최대 숙원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장래 항공수요를 반영한 충분한 규모의 민간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북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사업으로 공항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공항 연계 SOC사업과 지역개발 촉진과 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도로, 철도 등 교통망 확충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에서도 경북도의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건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속도감 있는 신규 국가산단의 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 후 국토부, 경북도, 경주시, 안동시, 울진군,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북개발공사는 '경상북도 신규 국가산단 성공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윤근수/기자

대구 북구 청년 라이프스타일 스쿨, '로컬리지'아이디어 제안대회 개최

대구 북구청은 지난 6월 24일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예비스쿨인 청년 라이프스타일 스쿨 '로컬리지(로컬+컬리지)'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아이디어 제안대회를 개최했다.

청년 로컬 라이프스타일 스쿨, '로컬리지'사업은 청년 주도의 창의적인 로컬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로컬리지'사업은 4월 22일 오리엔테이션 및 전충훈 前 행정안전부 혁신추진과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하여 약 2달간 인천 개항로 프로젝트(이창길), 부산 무명일기(오재민), 대구 더 커먼(강경민), 거제 아웃도어 아일랜드(박은진), 서울 지금의 세상(김현정) 대표로 구성된 5회의 특화과정을 끝내고 5개 팀별 워크숍을 통해 대구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로컬크리에이터로서 창업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15명의 참여 청년들은 팀별 아이디어를 발표했고, 그 결과 최우수는 1인 가구 청년들의 레트로 감성과 추억을 칠성시장과 접목한 로컬 쿠킹어드벤처를 제안한 '북두칠성'팀이 수상했고, 북구의 러닝투어를 제안한 '풍년'팀과 장애인, 비건, 제로웨이스트, 반려동물 양육인들을 위한 다정한 북구지도 제작을 제안한 '그저 다를지도'팀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 외에도 창업실험실을 제안한'올드보이'팀, 영화감독을 위한 서점 및 재활용창고를 제안한'배산임수'팀 모두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청년 라이프스타일 스쿨 '로컬리지' 사업은 청년들이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간접 경험하고 새로운 도전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지역에서 자신만의 로컬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역량과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도 청년들과 함께 로컬생태계 구축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청년들이 적극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동현/기자

영양군, 2023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4분의 기적 !

영양군보건소는 6월 19일에 이어 6월 26일 2회에 걸쳐 영양군보건소 전 직원 및 영양교육지원청, 군립요양원 전 직원 등 170여명을 대상으로 종합복지회관 2층 다목적실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전문 교수를 초빙하여 일상생활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각종 사고 시 응급조치 방법을 시작으로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사용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하여 진행됐다.

장여진 보건소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응급 상황 초기 대응능력 향상에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앞으로도 보건소 내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활용하는 등 군민들 대상으로 응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산소카페 청송군, 자연 생태환경 보전 앞장

생태교란식물 가시박 퇴치사업 본격 추진

청송군은 지역 내 낙동강 지류 주변에 번식하고 있는 생태계교란생물인 가시박 퇴치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가시박 서식지로 조사된 용전천을 포함한 57개소에 대하여 8천1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제거 인력을 투입하는 등 6월부터 시기별 제거사업을 추진한다.

효과적인 가시박 퇴치를 위하여 1차로 가시박이 열매를 맺기 전 6~7월에 집중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2차로 8~10월에 제거 후 생육하는 개체를 확인하며 추가 제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시박은 하천변 등 물가에서 급속하게 자라 수변에 살던 식물 및 수변동물의 서식환경을 변화시키고, 인근의 수목과 농작물 등을 감고 올라가 다른 식물의 광합성을 방해하며 고사시키는 등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린다. 특히 빠른 성장과 번식력, 쉽게 이동하고 확산되는 특성 등으로 인해 2009년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됐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가시박 집중제거를 통해 지역의 자생식물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파노라마 해운대 부기X핑크퐁 아기상어 포토존 조성

부기X핑크퐁 아기상어와 함께 해운대해수욕장 전경사진 남겨요

부산 대표적 관광지 해운대해수욕장 배경, 전경 찍을 수 있어…

부산시는 드론으로 찍은 것처럼 풍경과 인물을 동시에 촬영해주는 '파노라마 해운대 서비스' 와 연계해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 '부기X핑크퐁 아기상어' 포토존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부산갈매기 '부기'는 부산시 소통캐릭터로 널리 사랑받고 있으며 '핑크퐁 아기상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콘텐츠 지식재산권(IP)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5호 홍보대사로 활약하고 있다. '부기X아기상어' 조형물은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를 대비하여 지난 3월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장에 설치됐다가, 6월부터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해운대해수욕장으로 자리를 옮겨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파노라마 해운대 서비스'는 해운대해수욕장 관광안내소 앞 백사장 포토존에서 스마트폰으로 큐아르(QR)코드 스캔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촬영 버튼을 누르면 약 100m 거리 관광 안내

소 옥상에 설치된 고화질 카메라 2대가 관광객 모습과 해운대 전경을 촬영해 이메일 이나 스마트폰으로 전송해준다. 관광명소에서 스마트폰 또는 셀카봉으로 촬영하는 기존 방식의 한계에서 벗어나 최적의 화각으로 피사체와 전경을 동시에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부기X아기상어'와 함께 파노라마 서비스를 이용해 부산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남겼으면 좋겠다"라며 "아울러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은 부기와 아기상어가 부산의 대표 관광지에서 국내외 관광객들을 맞으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송종진/기자

포항시-봉화군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간 평생학습 협력 협약식 개최

포항시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와 봉화군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간 상생 도모

포항시는 23일 포항시 평생학습원에서 포항시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와 봉화군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간 평생학습 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용재 포항시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장과 강문영 봉화군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장을 비롯해 이상현 포항시 평생교육과장, 권순길 봉화군 평생교육팀장 등 관계 공무원들도 함께 자리해 축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상북도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회장 도시를 맡고 있는 포항시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의 대표적인 사업인 '슐런 지도사 양성과정', '어르신 주산 경기대회' 등 마을 평생교육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고, 양 도시가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의미로 마련됐다.

한편, 포항시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는 지난 2009년 제1기 양성과정을 시작으로 현재 제12기까지 회원 6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경상북도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회장 도시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상현 포항시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포항시 협의회와 봉화군 협의회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양 도시가 평생학습 분야의 우수한 사례를 공유하고, 상생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영양군 플리마켓추진위원회, 양수발전소 유치 챌린지 동참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플리마켓 '별별야시장' 성공적 개최

영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22일 16시부터 21시까지 영양 양조장 마당에서 여름 무더위를 피해 도시재생 플리마켓'별별야시장'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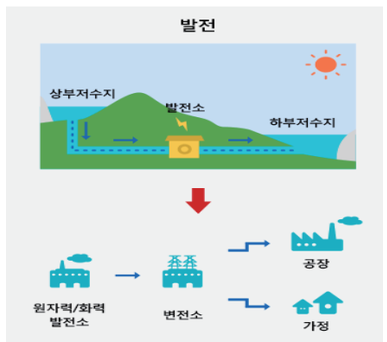
이번 행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2022년에 구성된'영양군 플리마켓 추진위원회'와 관내 수공예 및 먹거리 판매를 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기획됐다. 또한 양수발전소 영양군 유치를 지지하며 범군민 참여 챌린지도 진행했으며 양수발전 유치 현수막도 게시하여 홍보활동에도 동참했다.

수공예품과 먹거리뿐만 아니라 어린이 판매 2팀까지 참여하여 총 13팀이 참여해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열쇠고리와 중고물품, 수공예 및 목공예품, 생화, 건어물, 떡볶이, 영양군 농.특산물 등을 판매했다.

이재성 플리마켓추진위원회 위원장은"영양 양조장에서 주민들과 플리마켓'별별야시장'을 진행하여 조용한 영양의 밤을 활기차게 만들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앞으로 판매팀도 추가모집하고, 관내 다른 장소에서도 플리마켓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배준현 센터장은"지난 플리마켓'별별마당'에 이어'별별야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뿌듯하고 기쁘다"며"앞으로도 다양한 모습으로 영양군 도시재생사업을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YEONGYANG-GUN

청송군의회 현장중심 의정활동 위한 읍·면 방문

청송군의회는 제26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읍·면 방문을 결의하고, 지난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에 걸쳐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읍·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현안사항 청취 및 지역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6월 19일 안덕면, 20일 현서면, 21일 파천면·진보면 22일 부남면·현동면, 23일 청송읍·주왕산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주요 중점사업인 진보면 진보로 전선 지중화 사업장에서는 공사 중 민원 발생에 대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추진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했고, 안덕면 산남 파크골프장 설치사업은 산남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많은 만큼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권태준 의장은 "각 읍면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집행부와 서로 소통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군 의회도 읍면과 더 활발히 소통하며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2023년 문경시 역사사진 공모전 개최

나의 앨범에서 문경을 꺼내보다

문경시는 문경의 옛 모습이 담긴 중요 역사자료의 소실 위험을 방지하고 문경시민의 삶의 흔적을 역사적 자산으로 남겨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2023년 문경시 역사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기간은 2023년 6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이며 공모방법은 문경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공모사진을 동봉하여 문경시청 총무과 기록물관리팀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대상은 문경시의 문화·여가생활, 관혼상제 등 문경시민의 일상을 보여주는 사진, 마을·동네의 역사를 간직한 사진, 탄광도시 문경의 사진 등 1900년부터 1990년까지 문경의 옛 모습을 간직한 사진이다.

공모작은 심사를 통하여 대상 1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5명, 장려상 20명, 참가상 50명을 선정하고 총 1,240만원의 상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은 문경시 기록관에서 정리·분류 후 보관할 예정이며 디지털자료로 만들어 향후 문경사 편찬, 전시회 개최 등 문경시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이번 역사사진 공모전을 통해 지난 100여 년 동안 잊혀진 문경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료를 가지신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광역시, 상반기 최고의 적극행정·시정혁신 우수사례 선정

적극행정 분야 '가격 산정 기준 시점 수정으로 임차인 주거안정 실현'(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광역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시정혁신 우수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월 23일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과 시정혁신을 구현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와 구·군, 전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64건의 우수사례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10건의 사례가 본선에 진출했으며, 본선에서는 전문가 평가단의 현장심사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 참여한 시민평가단의 온라인 심사로 최종 순위를 확정했다.

경진대회 결과, 적극행정 분야에는 '가격 산정 기준 시점 수정을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을 실현하다'를 발표한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시정혁신 분야에는 '승강장 안전문 365 안전 플랫폼 자체 개발로 산업안전 패러다임 대전환'을 발표한 대구교통공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적극행정 분야 우수에는 '부지공급, 건축인허가, 준공.가동까지 원스톱 투자 대구 실현(대구광역시 기업지원과)', 시정혁신 분야 우수에는 '전국 최초 실효성 있는 소방행정 서비스 '소방안전지도 구축'(대구광역시 119종합상황실)'이 선정됐다.

수상기관에는 시장상과 시상금을 수여하고, 수상자에게는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등 특별 인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한, 동료들의 응원 영상으로 멋진 팀워크를 보여준 두 팀에게는 응원상도 수여했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실천해 온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지역의 우수사례 확산과 공직문화 혁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 "장마철 총력대응으로 도민 피해 최소화"

산사태·댐 방류·산지 태양광·위험저수지 등 안전대책 지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장마 피해 위험지역 현장 점검에 이어 호우피해 대비 재난대책보고회를 소집해 산사태·댐 방류·산지 태양광·위험 저수지 등 안전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전남도는 25일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재난대책회의에선 15개 실국이 여름철 풍수해 자연재난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북상하는 정체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25~27일 사이 80~150mm, 곳에 따라 시간당 4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데 따른 것이다.

재난대책회의에서는 인명피해 우려지역 집중 관리 및 범도민 홍보,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긴급 구조대책, 산사태 우려지역 관리 및 주민 대피 훈련, 농수축산업 피해 예방대책, 사회복지시설·취약계층 안전점검 및 의료·방역체계 구축 등 여름철 풍수해로부터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과거와 달리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의 돌발변수가 많고, 특히 올해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되므로 도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는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산림, 복지, 건설, 농림, 해양 등 각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세부적으로 산사태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1대1 공무원 담당제,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 지하주차장 통제, 최근 설치한 산지 태양광 집중 점검, 위험 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방안 마련 등을 강조했다.

이어 "현장 위주의 실질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도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비상 대피 모의훈련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안전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앞서 24일 보성 회천면 산사태 취약지 관리 실태와 보성읍 배수펌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 상황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 대응태세 구축을 지시했다.

보성 회천면 회령리 산사태 위험지역은 최근 사방댐 설치를 완료해 산지 하부의 주택 안전성을 확보했다. 보성읍 배수펌프장은 침수에 취약한 보성읍의 수해복구와 항구적 피해 방지를 위해 2018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된 후 132억 원(국비 50%·지방비 50%)의 예산을 들여 2022년 8월 설치를 완료했다.

김영록 지사는 "주민 생활권 내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응급조치와 함께 '선 주민대비, 후 보고체계'가 중요하다"며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개장 84일 만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500만 관람객 달성!

7월 1일 오천그린광장에서 사전 응모자 대상 500만 경품 추첨 진행! 아반떼 선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23일(14시 14분) 관람객 500만 명을 돌파했다. 개장 84일 만에, 최종 440만 명의 관람객을 확보한 2013정원박람회의 기록을 훌쩍 넘어섰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규, 순천시장)는 순천만국가정원 호수정원 나루터에서 500만 번째 입장객을 맞이하는 행사를 열었다. 라퍼커션의 시원한 타악기 연주로 시작된 행사에는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과 함께 노관규 이사장과 정병회 순천시의장 등이 참석했다.

500만 번째 입장객은 성남시에서 가족여행으로 순천을 방문한 이경옥 씨 가족이었다. 노관규 이사장(순천시장)과 정병회 순천시의장은 500만 번째 입장객에게 쉴랑게 숙박권과 정원드림호 탑승권, 100만 원의 순천사랑상품권을 전달했다. 해당 순천사랑상품권은 양운승 명성사우나 대표가 500만 관람객 돌파를 축하하며 후원해왔다.

노관규 이사장(순천시장)은 "짧은 기간 내 500만 명 관람객이 오실 정도로 큰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남은 기간 여름 휴가지로 가장 멋진 정원을 보여드리겠다. 개울길광장, 빙하정원, 그린아일랜드 등 여러분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다. 오셔서 더위도 날리고 새로운 에너지도 얻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노력해 온 직원들과 시민, 그리고 적기에 예산 지원에 힘써온 시의회에도 감사를 표했다.

이경옥 씨는 "순천에 계신 부모님을 뵙기 위해 가족여행 차 정원박람회를 찾았는데 뜻밖의 행운을 얻게 돼 기쁘다. 기대 이상으로 잘 꾸며진 정원과 따뜻한 분위기까지 더해져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아들 김준성 군이 "너무 행복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자 자리에 함께한 관람객 모두를 미소 짓게 했다는 후문도 전해졌다.

조직위는 500만 관람객 돌파를 기념해 대형 경품 추첨 행사도 기획하고 있다. 다가올 7월 1일 오후 7시 전후로 오천그린광장 상설무대에서 500만 경품 및 현장 경품 추첨이 진행될 예정이다.

500만 경품 추첨은 국가정원 동문과 서문, 남문 그리고 순천만습지와 오천그린광장에 위치한 응모함에 사전 응모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조직위는 추첨에 의해 1명에게 아반떼 모던 자동차를 선물한다.

그 외 현장 경품으로는 쉴랑게 숙박권(1명), 자전거(1명), 제습기(1명), 박람회 입장권(10명) 등이 있다. 현장 경품은 추첨일 당일, 행사 현장에 자리한 분들에게만 증정한다. 현장 경품 추첨함은 24일, 오천그린광장 입구 일원(종합안내소 맞은편)에 설치된다.

한편 모든 경품 추첨행사가 끝난 뒤 오후 8시 오천그린광장에는 SES 출신 가수 바다의 뮤지컬 갈라쇼가 펼쳐진다.

이승준/기자

충주시 홍보맨, 남원에 떴다! 남원시, 직원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행정 교육 개최

오프라인과 온라인 동시 배부로 1인 가구 지원정보 접근성 강화

남원시가 6월 23일,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홍보 트렌트 변화에 따른 직원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SNS 홍보사례로 보는 혁신적인 홍보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정부 혁신 강사이자 충주시청 유튜브 운영 전문관인 김선태 주무관이 초청돼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선태 주무관은 행정직 공무원으로 SNS 홍보업무를 담당하며 경험한 어려움과 성과를 공유하고, 개인과 조직이 왜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해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주무관이 운영하는 충주시 유튜브 '충TV'는 기존의 딱딱한 시정홍보 영상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와 결과로 전국 지자체 유튜브 구독자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기 채널이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자신이 겪은 시련과 성공비결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틀'을 깨는 도전으로 개인과 조직의 변화를 강조한 강의에 큰 박수로 화답하며 홍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4차 산업혁명, 인구 노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 공직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며 "이번 교육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변화해가는 긍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남원시

'바다에서 얻는 심신치유의 시간'…함평의 자연 속 쉼터로

해양치유센터·돌머리해수욕장·주포한옥마을 '힐링 명소' 각광

바쁜 일상에 지쳤다면, 몸과 마음을 뉘일 자연 속 쉼터로 떠나볼까. 함평군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해양치유 관광지를 소개한다.

먼저 함평군은 오는 7월 중순부터 '돌머리해양치유(해수찜)센터'를 운영한다. 해수찜은 천연해수와 직접 달군 유황석을 활용해 뜨거운 열기로 땀을 빼며 쌓인 피로를 풀 수 있는 함평의 명소다.

올해 함평군은 군 자체적으로 돌머리해양치유센터를 본격 운영하면서 보다 많은 이들이 함평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평읍 석성리에 들어선 '돌머리해양치유센터'는 연면적 1,112m²에 지하1층-지상2층 규모로 조성됐다. 해수찜, 해수탕, 샤워실, 음식점, 카페 등을 갖추고 있다.

여름철 전남지역의 대표적인 해수욕 명소인 '돌머리해수욕장' 또한 오는 7월14일부터 8월15일까지 운영에 나선다.

육지 끝이 바위로 되어 있어 '돌머리'라는 이름이 붙여진 돌머리해수욕장은 1km의 은빛 백사장과 넓은 소나무숲이 어우러져 천혜의 절경을 자랑한다.

이곳에는 목재 데크로 조성된 길이 405m의 갯벌탐방로도 있다. 바닷물이 빠지면 광활하게 펼쳐진 갯벌에서게, 조개 등이 살아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돌머리해수욕장에서 해 질 무렵 만나볼 수 있는 아름다운 낙조도 일품이다. 서해안의 황홀한 낙조를 카메라 앵글에 담기 위해 많은 사진작가들이 몰려드는 명소이기도 하다.

여름철 피서객들을 위한 인공해수풀장과 어린이풀장도 올해 시설을 개선하여 재개장한다. 워터슬라이드 등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물놀이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는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된다.

또한 돌머리해수욕장 인근에는 글램핑 5개 동, 카라반 10개 동과 갯벌체험 등을 마치고 쉬어갈 수 있는 초가원두막 25개를 갖추고 있으며, 글램핑장과 카라반, 원두막과 갯벌체험에 필요한 장화·호미 등은 석두어촌계에서 대여할 수 있다.

바다에서의 힐링 시간을 마치고 머무를 숙소를 고민한다면 돌머리해수욕장 인근 주포한옥마을을 강력 추천한다. 주포한옥마을은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를 한껏 느껴볼 수 있는 곳이다.

현재 총 30여 동의 한옥 민박이 운영 중이며, 빼어난 경관과 편리한 기반시설, 뛰어난 접근성으로 인근 지역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포한옥마을 입구에서 길을 따라

언덕을 올라가면 돌머리해수욕장의 너른 바다를 마주할 수 있으며, 함평만 낙조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주포한옥마을은 현재 총 50동의 한옥 중 30여 동이 한옥 민박으로 운영되고 있어 빼어난 경관과 편리한 기반시설, 뛰어난 접근성으로 인근 도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일상에 지친 모든 분들이 천혜의 자연 속에서 휴식하며 잠깐의 여유를 누리시길 바란다"며 "많은 분들이 힐링 명소로서 함평을 찾을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진/기자

함평군 HAMPYEONG COUNTY

나주시 천연염색재단, 천연염색 가죽 에코프린팅 전시전

30일까지 한국천연염색박물관서 가죽 패션 제품 선봬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은 오는 30일까지 한국천연염색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천연염색 가죽 에코프린팅 작품 전시전이 열린다고 24일 밝혔다.

에코프린팅은 에코(Eco)와 프린팅(Printing)을 합친 인쇄 용어 중 하나로천연염색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천연염색에 접목한 에코프린팅은 식물의 전체, 잎, 꽃 등을 염색하고자 하는 천이나 가죽에 밀착시킨 후 열을 가해 식물의 모양이나 색상을 천과 가죽에 인쇄하듯 남기는 기술이다.

염색 대상물을 염료액에 침지해 염색하는 일반적인 염색법과는 달리 식물의 각 부위 모습을 그대로 염색할 수 있으면서도 과정이 간단하고 심미성이 탁월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죽 에코프린팅은 염색 난이도가 높아 활성화가 덜 된 편이지만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인 작품들은 꽃, 식물들의 사진을 가죽에 인쇄해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선명한 염색 퀄리티를 자랑한다.

전시전에서는 한국천연염색가죽연구회 회원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김연화, 배정미, 윤숙희, 전현옥, 정정복, 최이다, 한화정, 황귀자, 황혜영 작가가 출품했다.

작품 중 일부는 신발, 작은 가방, 조끼, 상의 등 패션 제품으로 작품 감상과 더불어 다양한 활용법을 제안한다.

임경렬 재단상임이사는 "에코 프린팅 기법을 접목한 천연염색 제품의 다양성과 활용성을 느껴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천연염색 예술 작가들의 전시전을 통해 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저변 확대에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전북도 이북도민·북한이탈주민 가족결연 등 행사 치러져

동향(同鄕)의 정을 지닌 이북도민·북한이탈주민 10쌍, 가족의 연 맺어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새로운 가족의 연을 맺으며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이북도민은 황해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등 이북5도에 원적을 두고 있는 실향민으로 주로 실향민 2세, 3세가 그 주를 이루고 있다.

북한이탈주민과는 실향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는 점에서 서로의 애환을 나누며 교류와 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다.

교류의 일환으로 24일 전주시 완산구에 소재한 파티원에서 이북5도위원회가 주최하고 이북5도전북사무소가 주관한 이북도민·북한이탈주민 가족결연행사를 통해 10쌍의 새로운 가족결연자가 탄생했다.

가족결연사업은 남한사회에서 홀로서기와 사회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과의 1대 1 가족결연을 통해, 인적네트워크 형성과 정착을 돕기 위해 행전안전부 이북5도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함경북도명예도민으로 북한이탈주민과 새롭게 가족의 연을 맺은 김이재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서로의 자립과 정착을 돕는 든든한 정신적 조력자이자 후원자로 그 역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가족결연 행사에 이어 함경북도명예도민증 수상자 8명에 대한 수여식과 이북5도전북연합회 명예회장 위촉패 수여식도 진행됐다.

이북5도전북연합회 명예회장에 위촉된 김관영 도지사의 배우자인 목영숙 여사는"전북지역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전체의 화합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위촉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북5도위원회 산하기관인 이북5도전북사무소에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1쌍, 62명의 가족결연자를 배출한 바 있다.

이남출/기자

구례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삼대삼미 도시재생대학 2기 수강생' 모집

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 발굴을 통해 주민역량 강화 및 주민 간 협력 기틀 마련

전남 구례군은 오는 27일까지 구례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2023 삼대삼미 도시재생대학 2기 기초과정'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기 교육은 6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며, 총 8번의 강의가 준비됐다. 군은 강의마다 '지역 현안 의제 발굴 및 주민 제안 사업계획을 통한 현안 해결'을 주제로 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하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을 수강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삼대삼미 도시재생대학 2기에서는 사업 주체인 구례읍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업 운영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스스로 실생활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군은 실제 발굴된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사업화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반까지 마련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례읍 중심시가지형 사업대상자 지역주민 또는 도시재생사업에 관심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교육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구례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블로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구상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발굴을 통해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현/기자

완도해경, 실전을 방불케하는 수난대비 훈련 펼쳐

대형 해양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 수난대비 기본훈련 실시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대형 해양사고에 대비하여 수색구조 역량 및 수난구호 협력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날(22일) 오후 3시경 완도군 신지도 북방 인근 해상에서 완도군청, 육군 제8539부대, 민간해양구조대(드론) 등이 참여하여 낚시어선과 어선 간 충돌에 따른 해상추락, 침수, 해양오염 발생 상황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경비함정 9척, 유관기관 1척, 드론 3대 등이 동원된 실제 기동 훈련으로 진행됐으며, 다수 해상추락자 구조, 침수선박 배수작업, 해양오염 방제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6대 해양사고(충돌, 화재, 침몰, 좌초, 침수, 전복) 관련 충돌, 침수, 인명구조 상황을 연계하여 복합적인 상황을 부여하여 민·관·군 합동 상황대응 및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실전과 같은 훈련을 반복하여 구조 대응태세 역량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난대비 기본훈련은 연 4회 완도해양경찰서 주관으로 진행되며, 주·야간 관계없이 경비세력의 실제기동으로 진행된다.

양영율/기자

장흥군, '종이로 된 지적자료' 전산화 완료

장흥군은 최근 종이로 작성된 영구보존 지적자료의 전산화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자료 전산화 사업은 2022년 생산된 지적측량결과도 720매, 토지이동결의서 9,600매를 대상으로 했다.

군은 종이문서를 전산파일로 전환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시스템에 탑재를 완료했다.

장흥군은 현재까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지적원도, 임야세부원도, 지적(임야)도를 포함하여 토지대장(부책식, 카드식), 측량결과도, 토지이동결의서 등 중요 기록물 약 1,300,000매를 전산화 완료했다.

영구보존문서의 전산구축을 통하여 각종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문서의 훼손·멸실에 대한 복구자료 확보와 지적기록물 열람 및 확인 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군민에게 신속·정확한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영구보존문서인 지적자료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민 재산권 보호와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원/기자

화순군, 6월 중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 개최

'군민을 행복하게, 군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

화순군은 6월 20일 '화순군 민원 모니터 요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선 8기 새롭게 위촉된 34명의 민원 모니터 요원은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현장의 상황을 군에 전달하고 개선하여 군민이 좀 더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 중이다.

구복규 군수는 군민과의 소통을 위해 매회 간담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경청하고 직접 답변하는 열정을 보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영주차장 보안등 관리, 장마 대비 나무 전지작업 요청 등 총 9건의 건의 사항이 접수됐다.

지난번 건의된 17건의 건의 사항 중 보도 적치물 정리 등 6건은 이미 완료했으며,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계획 등을 안내했다.

민원모니터 요원이 건의한 민원 사항은 소관부서로 전달되어 세밀히 검토·처리한 후, 다음 간담회 때 그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군민을 대변하는 민원모니터 요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속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계속 부탁드린다"라는 감사의 말과 함께 "군수와 공무원은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윤경호/기자

목포시, 정류소 정차 질서문란 행위 등 교통 질서 위반행위 집중 단속

택시 호객행위 및 정류소 정차 질서 문란행위에 과태료·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처분

목포시가 오는 7월 10일부터 택시 호객행위, 정류소 질서문란 행위 등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한다.

목포역, 버스터미널 등 시내 전역에서 이뤄질 이번 집중 단속은 시 이미지 제고와 올해 10월과 11월 개최 예정인 제 104회 전국체전·제 43회 전국장애인체전 등 주요 행사를 대비해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 승객 승하차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특히, 목포역 앞은 일부 택시들이 택시 승강장에 정차하지 않고 열차 도착시간에 맞춰 목포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잠시 정차해 승객을 태우면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한편, 시 이미지도 훼손돼 왔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단속반 투입 및 CCTV 단속을 통해 택시 호객행위·정류소 질서문란 행위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인 정류소 정차 질서문란 행위는 버스정류장 반경 10m 이내에 주정차해 노선버스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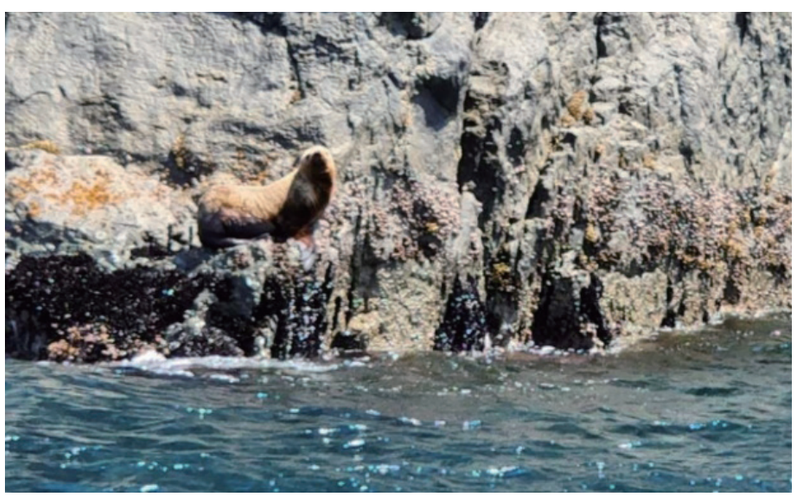
정류소 질서문란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업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차 위반 시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이, 2차 위반 시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4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호객행위 단속 및 행정 계도를 통해 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운송 질서를 확립해 시민들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100여 년 만에 신안에 돌아온 큰바다사자

1920년대 일제 강점기 이후 해양생태계보호구역 가거도에서 관찰



신안군과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는 6월 23일 국토 최서남단 신안 가거도에서 멸종위기II급인 '큰바다사자'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큰바다사자는 시베리아 연안, 캄차카 반도, 베링해 등 북부 태평양 바다에서 서식하는 바다사자의 일종으로 수컷의 무게는 1톤이 넘는다. 110≣130m까지 잠수하며, 수중에서는 시속 25≣30km로 헤엄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명태, 꽁치 등 어류와 새우, 조개, 소라 등이 주 먹이원이다. 현재 국내에는 큰바다사자의 집단 서식지는 없지만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 주변 해역, 제주도 등지에서 아주 드물게 관찰되며 멸종위기야생생물II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신안군 가거도에서 확인된 큰바다사자는 영해기점인 녹섬 갯바위에서 휴식하고 있는 모습이 어업을 마치고 입항하던 주민에 의해 1개체가 최초 목격됐다. 큰바다사자는 과거 1920년대 신안 가거도 부속섬 구굴도, 개린도에서 120여 개체 서식했으나 일제 강점기 일본에 의해 남획되어 이후 사라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관찰은 무려 100여 년 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국토 최서남단 가거도 해역은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어족 자원이 풍부한 청정지역이다."라며, "큰바다사자의 서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 모니터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진/기자

경북도, 6·25전쟁 73주년 행사 개최, 호국영웅의 희생과 헌신 기려

'제복의 영웅들' 행사를 계기로 국민적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달

경북도는 6.25전쟁 73주년을 맞아 25일 예천문화회관에서 6.25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통해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과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6.25전쟁 73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김학동 예천군수, 최병욱 예천군의회 의장, 채운기 공군 제16전투비행단장을 비롯한 도내 주요인사, 군부대장, 6.25참전유공자, 보훈단체, 군인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위대한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이라는 주제로 △기념공연 △6.25 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환영사 △기념사 △인사말씀 △제복의 영웅들 행사 △호국노래(전우야 잘자라) 합창 △6.25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또 그동안 규격화된 제복이 없어 6.25참전유공자 본인이 직접 단체복장을 구매해 왔으나, 올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특별히 추진되는 '제복의 영웅들'행사를 계기로 나라를 지킨 호국영웅들에게 새롭게 제작한 제복을 직접 입혀드리며, 국민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기념사에서 "경상북도는 6.25전쟁 최후의 방어선인 낙동강 전선을 지켜낸 구국의 현장이며, 전쟁으로 황폐화된 조국의 산하를 새마을 운동의 깃발을 앞장서 들고 농촌 근대화를 이끌었으며, 포항의 철강과 구미의 전자산업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든 고장이다"라고 강조하며, "경북도에서는 국가보훈 대상자들을 존중하고, 명예를 드높이는 섬김의 보훈정책으로 경북의 호국보훈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화성시의회, [6.25전쟁 제73주년] 위대한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화성시의회는 25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73주년 6.25전쟁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 오문섭 부의장을 포함한 화성시의원이 참석했으며,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김경희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수많은 희생과 눈물 위에 세워진 기적의 나라이고, 이 모든 것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덕분이다."라며, "민주주의와 자유의 씨앗을 지켜주기 위해 하늘의 별이 된 분들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라고 전했다.

또한 청림초등학교 대표로 3학년 구연아 양은 감사편지 낭송을 통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참전용사의 사례를 알게 됐는데 그들은 우리나라의 영웅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한명한명의 이름이 기억됐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전했다.

제73주년 6.25전쟁 기념행사는 6.25전쟁에 대한 역사적 의의에 대한 재조명을 통하여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추진됐으며, 표창 및 감사패 수여, 6.25영상물 상영, 합창단 및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양시현/기자

충북도 여름에 미리 준비하는 겨울나기, 목재펠릿 선구매

목재펠릿 하절기 선구매 시범사업… 7월 31일까지 신청

충북도는 작년 겨울 목재펠릿 보일러 연료인 목재펠릿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제한적인 구매를 통해 불편을 겪었던 목재펠릿 보일러 사용자들의 펠릿 공급 불안을 해소하고, 목재펠릿 제조시설의 재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3년 목재펠릿 하절기 선구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펠릿 하절기 선구매 시범사업'은 최근 등유 가격 상승 등 목재펠릿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목재펠릿의 소비량이 많아지는 동절기 전인 하절기에 미리 목재펠릿을 구매하여 동절기 수급 불안정을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절기 선구매는 5~10% 가량 할인된 단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목재펠릿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목재펠릿 하절기 선구매 신청서'를 작성하여, 7월 31일까지 접수·판매 대리점으로 제출하면 된다.

충북의 접수·판매 대리점은 산림조합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충주산림조합, 제천산림조합, 보은산림조합, 괴산증평산림조합, 단양산림조합(제조시설)으로 총 6곳이다.

신청한 목재펠릿은 8월 1일부터 한 달간 본인이 신청한 구매처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배송요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산림부서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태은 산지관리팀장은 "목재펠릿 하절기 선구매 시범사업이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률이 높은 충북의 소비자들의 구매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으며,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영율/기자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본격 돌입

경기 시흥시의회가 제30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 현지 확인과 점검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의 감사선언, 증인선서, 현지 확인 활동, 감사질의 및 부서별 감사,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된다.

시의원들이 요구한 감사 대상 사무를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는 여성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현황 등 9건, 교육복지위원회는 어린이 통학로 조성 전반 등 12건, 도시환경위원회는 맑은물상상누리 조성 사업을 비롯한 사업 준공 후 시설물 관리 현황 전반 등 7건이다.

감사 첫날인 21일 자치행정위원회는 시흥문화원 건립공사 관련 부지를 찾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공사 추진 현황을 살피며 조기착공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은계호수공원을 방문해 지난 5월 열린 축제 때 파손된 시설을 주로 살피며 빠른 복구로 공원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 등을 주문했다.

같은 날 교육복지위원회는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 센터를 방문하여 장난감 도서관, 유아체험실, 프로그램실, 수유실 등 시설을 꼼꼼히 살핀 후 관계자로부터 센터 운영 현황을 청취하며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육아종합지원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앞서 20일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를 찾아 도시재생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관리되어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한데 이어 21일과 22일 양일간 목감·배곧·장현지구·매화산업단지 내 자전거도로 설치 지역과 국도39호선 둔대-하중 확장공사 현장, 맑은물상상누리 등 감사 대상지 7개소를 찾아 실태를 파악하고 관계자들로부터 운영 및 추진 현황을 청취하는 등 현지 확인에 나섰다.

송미희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합리적인 근거와 대안 제시로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오는 6월 3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이번 현지 확인을 비롯한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신우용/기자

대구시의회, '새식구' 군위 맞이 막바지 점검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일주일 가량 앞둔 6월 23일, 군위군을 방문해 군위군수와 군의회 의원들을 면담하고, 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농정 현안을 청취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만난 자리에서 군위군수와 군위군의회 의원들은 농민수당 지원과 농업 관련 대구시 기본조례 제정, 시 농정조직 확대 등을 건의했고, 경환위원들은 군위군이 대구시 편입 이후에도 시의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양영율/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제대 군인을 위한 '취업 지원 현장 상담' 실시

현장 참여 군인들의 목소리 반영, '제대군인 자격 취득 지원 과정' 확대 운영키로

강원특별자치도가 6. 24 ~ 6. 25 이틀 간 춘천 수변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73주년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에 참가하여 5년 이상 중장기 복무 제대(예정) 군인 대상 취업 지원 현상 상담과 정착지원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가 주관한 취업 지원 현장 상담은 취업 희망 제대군인의 직무 성향을 알아보는 행동유형검사(DISC검사), 군 경력과 보유 자격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취업 역량 진단,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구인 기업 일자리를 연계하는 맞춤형 구직 알선, 제대군인의 취업 역량을 강화를 위한 자격 취득 프로그램 안내 등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제대(예정) 군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사업 설명회에서는 강원도의회 소속 도 의원과 도내 군 간부를 대상으로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추진 성과와 향후 보완할 점, 사업 활성화 방안, 장·단기 추진 계획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의 당위성과 이해도를 한층 높였다.

이와 더불어 도는 현장에서 수렴한 제대(예정) 군인들의 의견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3개 과정(전기기능사, 조경기능사, 소방안전관리자 각 1기수)으로 진행했던 '제대군인 자격 취득 지원 과정'을 하반기에 추가 운영(전기기능사, 지게차 면허, 골프장 코스장비 관리사 취득 과정 각 1기수, 총 45명)함으로써 제대(예정) 군인을 위한 정착 지원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춘천 수변공원 일대에서 열린 이번 제73주년 전승행사는 한국 전쟁 당시 민관군 총력전으로 북한군의 남침 계획을 좌절시킨 춘천지구전투를 기념하고자 국방부와 육군이 주최하고 2군단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국가보훈부 강원서부보훈지청이 주관하는 행사로, 많은 관람객이 방문한 가운데 각종 체험 전시와 홍보 부스 운영, 블랙이글스 에어쇼, 의장대 시범, 태권도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펼쳐졌다.

김현관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장(도 비상기획과장 겸직)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 중 군인 가족의 비중이 높은 만큼 군 인력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 영향이 매우 크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제대군인 정착지원을 전담하는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제대군인 요구 사항의 적극 반영, 군부대 협업 강화, 사업 인지도 제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등원/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벼 잎벌레 긴급 방제 현장 방문 "벼 농가 피해 방지에 만전" 당부

아산시 23일부터 드론 13대 투입… '벼 잎벌레' 긴급 방제 돌입

아산시가 23일 농작물 돌발병해충 긴급방제단을 가동하고, 드론 13대를 투입해 긴급 방제에 나섰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긴급 방제 첫날인 23일 오전, 선장면 채신언리 일대 긴급 방제 현장을 방문해 벼 잎벌레 피해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철저한 방제 당부와 방제단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긴급 방제는 최근 아산시 관내 논과 하천변 주위에서 벼잎벌레 등 저온성 월동 해충 유충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주요 방제 구역은 벼잎벌레의 주요 월동처인 염치읍, 인주면, 선장면, 신창면 인근 곡교천변 제방둑 인접 지역이다. 방제계획 면적은 약 300ha다.

벼잎벌레는 벼 잎 위에서 아래로 표면을 갉아 먹어 지나간 자리에 백색 선 모양의 흔적이 생기며, 잎 뒷면의 표피만 남고 끝에서부터 갈라져 갈색으로 말라 죽는 피해를 안긴다. 초기 방제에 소홀할 경우 수확기 수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벼 병해충 예찰 결과 조기에 모를 심은 논과 하천변을 중심으로 벼잎벌레 유충 개체수 증가를 발견했으며, 온난화로 인한 월동 성충 밀도 증가와 봄철 평균 기온 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23일부터 3일간 드론 13대를 가동한 긴급 방제를 펼칠 예정이며, 벼잎벌레는 약제 감수성이 높아 발생 초기 방제할 경우 쉽게 방제할 수 있는 만큼 공격적인 초기 방제 작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박경귀 시장은 "벼잎벌레 방제는 초기 방역 효과가 큰 만큼 조기 발견, 긴급 방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벼잎벌레 유충은 조류 배설물로 오인해 방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농가 스스로 세심한 관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아산시 농작물 돌발병해충 긴급방제단은 돌발병해충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방제를 진행해 병해충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는 농가 보호와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주요 벼 병해충에 대한 지속적인 정밀 예찰과 현장 기술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전에 없던 돌발병해충 발견 시 신속하게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원호/기자

충북도, '신들의 바다 정원'팔라우에서 낚시 어때요!

(사)한국낚시협회에 팔라우 관광교류 협력 제안

5시간의 짧은 비행시간, '신들의 바다 정원'이라고 불리는 남태평양의 청정 휴양지이자 다이빙 천국인 팔라우에서 우리나라 강태공들이 낚시와 휴식을 즐기는 팔라우와의 관광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충북도가 발벗고 나섰다.

충청북도는 김영환 지사와 팔라우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낚시협회와 협업을 통해 전세기 취항 등 직항노선 개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영환 지사는 6.23일 김오영 (사)한국낚시협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팔라우와의 본격적인 교류추진을 위해선 한국과 팔라우 간 직항노선의 필요성과 천만 낚시인이 팔라우 직항노선 개설에 도움이 될수 있음을 강조하며 낚시협회의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김오영 회장은 김지사 제안에 크게 공감하며 낚시인이 앞장서 양 지역 간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한 직항노선 개설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지사는 이 자리에서 김회장에게 "팔라우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어종이 서식한다."며 낚시 동호인들이 팔라우를 방문해 신선한 낚시 경험을 해보길 권했다. 충북에는 바다가 없고 팔라우는 산이 없어 우리가 팔라우 바다를 향해 가면 팔라우 국민들이 우리 도의 산을 즐길 수 있도록 양 지역의 교류를 관광분야에서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팔라우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청주의 한 여행사에서는 청주국제공항과 팔라우 간 전세기 패키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제주항공에서는 7~9월 인천에서 팔라우로 가는 직항편 3편(전세기)을 취항할 계획이다.

충청북도는 지난 5월 31일 양 지역 정상회담 이후 교육·관광·환경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항항공 개설 시 양 지역의 교류·협력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정화/기자

천안시, 제73주년 6·25전쟁 기념행사 개최

고 홍한표 선생 70여 년 만에 공 인정받아 훈장 수여

천안시는 25일 충남학생교육문화원에서 제73주년 6·25전쟁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6·25참전유공자회 천안시지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박상돈 천안시장을 비롯해 각급 기관·단체장, 참전유공자, 보훈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 훈장전수,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격려사, 헌정곡, 6.25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훈장 전수식은 6·25전쟁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전달받지 못한 고(故) 홍한표 선생의 자녀 홍성철 씨가 부친을 대신해 참전유공자들 앞에서 화랑무공훈장을 전달받아 더욱 의미가 깊었다.

지난 1949년 8월 2일 입대해 1954년 7월 15일 제대했던 고(故) 홍한표 선생은 6·25전쟁 당시 공을 인정받아 70여 년 만에 무성화랑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로 결정됐다.

홍성철 씨는 "6·25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신 아버님께서 늦게나마 훈장을 받게 되셔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상돈 시장은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든 역사의 주역이신 참전용사분들의 희생과 헌신, 보훈 가족들의 고통과 눈물을 바탕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었기에 다시 한번 고귀한 희생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조국에 대한 그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고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존경과 예우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태백시, 2분기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 점검 실시

태백시는 지난 23일 2023년 2분기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은 전시 동원 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민·관·군 상호협력체계 구축과 동원 지정된 자원에 대한 임무고지 여부, 변동사항 반영 여부 확인 및 대체 지정 등을 통해 비상시 신속한 동원 지원태세 확립을 위해 실시한다.

이에 시는 동원자원 관리현황 점검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점들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분야별 자원조사 담당자, 군부대 관계자 등과 함께 중점관리대상자원 점검 현황 발표 및 동원자원 조사 결과에 대해 토의했다.

이날 업무 협의로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통해 2024년 충무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신정숙 안전과장은 "비상사태 시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통해 비상시 차질 없는 동원 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원주시 간현관광지에서 수상레저 즐긴다! 물놀이 콘텐츠 업그레이드!!

간현관광지 물놀이 콘텐츠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다.

원주시는 오는 7월부터 카약을 비롯해 워터슬라이드, 범퍼보트, 수경시설 등을 순차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카약은 7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나오라쇼 광장 앞 삼산천에서 양날 노를 저으며 빼어난 경관을 즐길 수 있다.

워터슬라이드와 범퍼보트장을 갖춘 임시 물놀이장은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간현체육공원 내에서 운영된다.

아이들이 신나는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간현관광지 입구 쪽의 수경시설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카약과 물놀이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원주 소금산 밸리 입장권을 소지한 방문객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수경시설은 모든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물놀이 콘텐츠 업그레이드를 통해 간현관광지에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라며, "체류형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충남,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 국비 150억원 확보

스파연계 재활헬스케어 고도화 및 휴먼마이크로바이옴 등 3개 사업 공모 선정

충남도가 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이오 분야 신규 3개 사업이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며 국비 150억 원을 확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도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과 '초광역 과제' 공모에서 '스파연계 재활헬스케어 제품 안전 및 고도화 사업', '디지털 연계 흡수성 소재 융복합 의료산업 기반 구축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의과학 분야 선도 연구센터(MRC) 사업' 공모에서는 '휴먼마이크로바이옴 분자 제어 연구센터'가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스파연계 재활헬스케어 제품 안전 및 고도화 사업'은 민선8기 역점과제로서, 지역특화자원(스파)과 첨단 바이오 기술을 연계한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재활헬스케어 산업의 새로운 선도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2025년까지 3년 동안 국비 48억 원을 포함, 총 80.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이미, 도는 2020년 선정된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 사업'을 통해 아산시 염치산단 내에 '헬스케어 스파산업지원센터'를 구축 중이며, 올해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번 공모선정 사업을 통해 지원센터의 기업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품 디지털 전환 및 안전성·유효성 지원 등 완성도 높은 패스트 트랙(fast-track)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스파연계 재활헬스케어 산업의 전국적 거점' 위상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휴먼마이크로바이옴 분야로,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의과학분야 선도연구센터(MRC) 사업' 공모에서 '휴먼마이크로바이옴 분자제어 연구센터'가 최종 선정되어 2029년까지 국비 94.5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선정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국가재난 슈퍼박테리아·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진단 기술개발 기반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휴먼마이크로바이옴 기술개발 전문 연구센터를 확립할 계획이다.

그 동안 충남은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산업 선점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왔다. '21년 예타 미선정 이후, R&D 및 기반구축 분야 후속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 이번 공모선정을 통해 기초·원천 및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해 체계가 마련됐으며, 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공정개발 및 상용화 지원센터가 천안·아산 R&D 집적지구 내 2025년 개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충남에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국내 휴먼마이크바이옴 선도 모델 및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그 밖에, 도와 광주·전남이 함께 참여한 디지털 연계 흡수성 소재 융복합 의료산업 기반 구축 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서는 국비 7억 원을 확보했다.

이 선정에 따라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가 세종에서 충남지식산업센터로 이전, 디지털 연계 흡수성 소재 상용화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충남의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거점 도약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 이라며 "앞으로 충남이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메카로써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서울시, 폐업고민·디지털취약 소상공인에 진단 ~컨설팅~비용지원…7.14까지 접수

2023년 하반기, 폐업 고민중인 소상공인 650명에 전문가 진단 및 상황별 맞춤 컨설팅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폐업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돕는'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 지원'과 디지털 취약 중장년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의 하반기 지원대상을 모집한다.

위 사업은 서울시가 코로나19이후 3高 한파(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의 경우 상반기 1,350개 업체,'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지원'의 경우 상반기 125개 업체가 참여했다.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 전문가 진단 및 폐업비용 지원]

코로나19 종식이 선언됐지만 자영업자의 40%는 영업실적 악화, 대출 상환 부담 등으로 폐업을 고민(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자영업자 2022년 실적 및 2023년 전망' 설문, '22.12월)하고 있다. 재단은 이러한 폐업 선택의 기로에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사업운영 방향 진단과 솔루션 제시 및 이행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전문가의 아이템, 상권, 시장성 등 종합적 분석을 통해 경영개선이 필요한 기업인지 사업정리가 필요한 기업인지 분류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진단 결과 사업을 지속하기로 한 소상공인에 마케팅, 세무, SNS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분야별 심화 컨설팅과 광고·홍보, 교육, 환경개선 등 이행비용을 최대 300만 원 내 지원한다.

불가피하게 폐업을 결정했다면 폐업신고, 세무.채무관리 등 폐업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체계적으로 도와준다. 아울러 점포 원상복구비, 임대료, 사업장 양도 수수료 등 폐업 소요비용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중장년 소상공인에 디지털 전환 지원' - 밀착 컨설팅 및 사업비용 지원]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소비가 지속 증가하고, AI·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이 경영과 접목되면서 '디지털전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동 사업은 특히 디지털 기술에 취약한 40대~50대의 중장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담 관리자가 업체별 1:1 매칭되어 디지털 역량진단부터 교육·컨설팅·비용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지원한다.

컨설팅은 단순 일회성이 아닌, 업체 상황에 맞는 실행 과제 도출, 실행, 점검 및 향후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 이행과 피드백이 밀도 높게 이루어진다. 소상공인 스스로 디지털 활용에 능숙해질 수 있도록 기초·심화 과정의 온·오프라인 교육도 제공한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중장년 특성을 고려해 관련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 전환 우수사례 및 실무 팁을 공유하는 오프라인 간담회, 토크콘서트 등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구축, 배달앱 입점, 온라인 마케팅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이행지원비용 3백만 원을 제공한다. 차년도 사후관리까지 꼼꼼히 지원하며 우수기업에 추가로 사업정착비용 1백만 원을 지급하는 등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폐업 고민 소상공인 650명, 디지털 전환 희망 중장년 소상공인 125명, 7월14일까지 모집]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사업' 및'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의 하반기 지원대상 모집기간은 6월 26일부터 7월 14일까지이며 서울시 소상공인종합지원포털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지원대상 여부 및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철수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소비침체 등 경영 악화와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진단, 밀착 컨설팅, 비용지원 등 맞춤형 지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 K-로봇 직접 보고 경험하는 어린이 로봇행사 열린다

용산 어린이정원, 22종 59대의 로봇이 참여하는 '로봇과 놀자' 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24일과 6월25일 용산어린이정원에서 로봇과 사람이 공존하는 미래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어린이 체험 행사'로봇 그리고 인간: 로봇과 놀자'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을 포함한 가족 단위 참관객들의 신청을 받아 총 1만여 명(2일간 사전등록기준)이 참여하며, 총 22종 59대의 로봇을 대상으로 ▲ 로봇 체험 행사, ▲ 로봇 문화공연, ▲ 창작 로봇 대회 등이 진행된다.

로봇 체험 행사는 로봇전시존, 로봇플레이존, 푸드테크존으로 나뉘어, 반려로봇, 변신로봇 등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로봇을 비롯해 다양한 로봇 볼거리를 제공하고, 로봇스포츠게임, 로봇조종체험, 로봇제작 등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할 있는 각종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푸드테크존에서는 치킨로봇과 아이스크림로봇, 바리스타 로봇이 만든 간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아울러, 로봇 문화공연에는 로보웍스 이현종 대표의 '로봇 매직(Magic) 강연쇼', 연주로봇과 댄스로봇의 '로봇 버스킹', 그리고 4족 보행로봇의 합동 시연이 진행됐다. 창작 로봇 대회는 코딩(초등고학년), 미션(초등저학년), 창작(유치부) 등 3개 종목으로 총 114개의 가족단위 팀(코딩 32개팀, 미션 32개팀, 창작 40개팀)이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로봇 인식 제고와 로봇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로봇 체험 및 홍보·소통 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7월 중으로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K-로봇 산업전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임종식 경북교육감, 전국기능경기의 선두에서 직업교육의 이정표 제시

전국기능경기대회 4회 연속 종합우승을 위한 준비 완료
임종식 교육감, "경북 직업교육, 자신 역량 성장 환경 조성, 양질의 취업 기회와 일류 기능인으로 성장 기회를 제공"해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지난 3년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3년 연속 종합우승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달성해 기능경기를 통한 직업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고용노동부와 광역시도, 그리고 시도교육청 주최로 매년 개최되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숙련기술인의 경연 대회다.

최첨단 산업 동향을 반영한 50여 개 직종으로 실시되는 기능경기대회의 각 직종에는 17개 광역시도에서 지방기능경기대회를 통해 선발된 1,800여 명의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게 된다.

지난 1966년 1회 대회 시작, 2022년 제57회 경남대회까지 수많은 기술인이 평소 자신들이 갈고닦은 역량을 겨뤘으며, 전국대회 입상자는 금메달(1,000만 원), 은메달(600만 원), 동메달(200만 원) 수여 및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그동안 기능경기대회의 강세는 인적·물적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이었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지원과 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경북 직업교육이 2018년부터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했다.

특히 2018년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사상 최초로 종합우승을 달성한 경북은 이후 기능경기의 이정표가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9년 제54회 대회에서는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으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3년 연속 종합우승'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으며, 특히 일반인을 제외한 학생부 성적으로는 2018년부터 5년 연속 종합 1위의 실적을 거두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 기관에 수여하는 기능 금탑을 2회 수상한'신라공업고'와 기능 은탑 4회 수상에 빛나는'금오공업고'등 수많은 기능 명문 직업계고가 있어서 가능했다. 경북교육청은 지금까지 성적을 바탕으로 올해 충남에서 실시되는 제58회 대회에서 4년 연속 종합우승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은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태극마크를 달고 대한민국 기능인의 위상을 전 세계에 펼치기도 하고,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바탕으로 국내 유수의 기업에 취업해 대한민국 기능 명장의 길을 걷기도 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중심에 기능경기대회가 있으며, 경북 직업교육은 매년 놀라운 성적으로 기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며 "경북 직업교육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취업 기회와 일류 기능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청송 Wee센터 가족과 함께하는 『희망 어울림 가족캠프』실시

정태호 청송 Wee센터장, "이 캠프가 가족들에게 긍정적 추억으로 회상되며, 삶의 힘이 될 수 있는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지난 22일(목) ~ 23일(금)까지 2일간 관내 초·중·고 학생을 자녀를 둔 21가족 81명을 대상으로「가족과 함께 하는희망 어울림 가족캠프」를 실시하였다. 관내 22개교의 21가족은「가족과 함께 하는 희망 어울림 가족캠프」의'참 만남 프로그램'에서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확립하였다.

청송교육지원청 Wee센터는 가족간의 의사소통 활성화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캠프를 진행하였다. 가족협동 프로그램 및 마음 치유활동을 통해 가족간의 진정한 만남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참여 가족은'가족어항꾸미기'에서 부모 자녀간의 어색함을 극복하고 서로에 대한 관계회복에 도움이 되었음을 이야기하였다.

정태호 청송 Wee센터장은 가족과 함께하는 희망 어울림 캠프가" 가족들이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가족간의 유대감과 신뢰감이 증진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더불어 훗날 가족들에게 긍정적 추억으로 회상되며 삶의 힘이 될 수 있는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등굣길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 실시

제37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마약 NO! 약물 오남용 NO!
임종식 교육감, "유해 약물로부터 안전을 지켜내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 동참"당부

경북교육청은 지난 26일(월), 제37회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이해 경북일고등학교 정문에서 재학생 583명을 대상으로 등굣길 마약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경북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한 이날 행사는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관련 범죄의 증가에 따라 청소년 마약범죄 노출을 예방하고자 등교 시간에 맞춰 경북교육청, 예천교육지원청, 경북경찰청 마약 예방 관계자 20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행사 참여자들은 ▲마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 주세요 ▲함께 만들어요 마약 없는 학교 ▲의약품 구입은 신중하게 ▲쉬운 시작 책임은 무겁습니다 ▲단 한 번의 호기심이 평생 중독자로 만듭니다 등의 내용을 담은 어깨띠와 피켓을 들고 청소년들에게 마약의 유해성을 적극 홍보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27일(화) 마약 예방 교육자료 개발 3차 회의를 개최해 마약 예방 교육자료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이해 우리 아이들을 마약 등 유해 약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경상북도교육청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2023년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박현국 이사장, "학생들 미래 인재 성장의 밑거름되길 바라며, 희망을 가지고 학업에 매진토록 지속 지원"

봉화군의 교육발전과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된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는 지난 23일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수여식에는 박현국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과 임원, 학생, 교사, 학부모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학, 성적우수, 희망, 다자녀, 기숙사, 특기 등 6개 부문별로 선발된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장학생은 봉화군 내 학생(졸업생)으로 학교장 추천과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됐으며, 대학생 14명과 고등학생 405명, 초·중학생 64명, 단체 5팀 등 개인 483명 단체 5팀의 학생에게 2억8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박현국 이사장은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에 동참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이 자리가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희망을 가지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편,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는 회원 회비/특별 후원금, 예금 이자, 봉화사랑 카드 적립금 등으로 장학금을 운용 중이며, 지금까지 8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정금자/기자

Gyeongsangbuk-do Bonghwa Office of Education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서울시, 치매환자 돕는 `기억친구` 23만여명 참여…영상(UCC) 공모전 개최

시민이 치매환자와 가족 돕는 '천만시민 기억친구 프로젝트' 추진, 홍보영상 공모

'왠지 나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치매. 하지만 치매는 누군가가 겪은 어제이고, 내가 겪을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치매 어르신이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 기억친구와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듯이 이제 우리가 기억친구가 되어 치매 어르신께 손을 내밀 차례입니다.'

- 2022년 기억친구 영상 공모전, 대상 수상작 작품설명

버스 기사 000씨는 버스가 종점에 도착했는데도 내리지 않고 멍하게 앉아있는 어르신을 발견했다. 다가가서 '어디까지 가십니까?라고 묻자, 어르신은 10년 전 폐쇄된 노선의 정류소를 이야기했다. 기사는 '사무실에서 차라도 마시자'며 어르신을 내리게 한 후 사무직원이 응대하도록 했다. 직원은 어르신 지갑에서 가족 연락처를 찾아 연락할 수 있었다.

버스 기사, 택시 기사, 지하철 역무원 등 시민 누구나 치매환자를 접할 수 있다. 버스 이용자 중 치매 어르신이 있다면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잊어버려 곤란해하거나 종점에 도착해서도 내리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사무소로 안내해서 대응하도록 하고, 자택이나 경찰 등에 연락을 취하도록 매뉴얼 등을 만들어 두면 도움이 된다.

시민들이 우리 동네에서 치매환자를 만나면 적극 도와주는 '기억친구'와 '기억친구리더'로 약 23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는 이들의 따뜻한 활동을 알리기 위해 '천만시민 기억친구 영상(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천만시민 기억친구 프로젝트'를 실시, 시민이 교육에 참여해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도와주는 '기억친구'와 '기억친구리더'를 양성하고 있다. 올 5월 기준 기억친구는 228,866명, 기억친구리더는 9,071명으로 총 23만 7,937명에 이른다.

기억친구는 서울시민 누구나 1시간의 교육을 수료하면 될 수 있으며, 가족, 친구, 이웃에게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역할을 한다.

기억친구리더는 중학생 이상 서울시민으로 5시간 기억친구리더 양성교육을 받은 후 활동할 수 있다. 버스 기사, 경비원, 가정배달 판매원 등 지역주민 대상 연간 1회 이상 기억친구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지역사회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 홍보활동을 한다.

이번 천만시민 기억친구 영상(UCC) 공모전은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5인 이내 단체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천만시민 기억친구 프로젝트 홍보 ▲기억친구, 기억친구리더 활동 소개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치매조기검진 중요성, 치매안심마을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이다. 영상은 광고, 영상 일기(V-log), 정보 그림(인포그래픽), 만화 영화(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다양한 형태로 2~3분 이내로 제작하면 된다.

접수는 6월26일부터 8월18일까지 참가신청서와 작품 파일을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누리집, 또는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총 9개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9월 중 심사를 거쳐 대상(1편) 100만 원, 최우수(1편) 50만 원, 우수상(2편) 각 30만 원, 장려상(5편) 각 10만 원의 상금과 각각 상장을 수여한다.

시는 올해 수상작을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홍보 콘텐츠로 반영하여 더욱 친근한 내용으로 시민의 치매 인식개선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치매환자를 돕는 '기억친구'와 '기억친구리더'로 23만 명이 넘게 참여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치매 걱정없는 서울'을 만드는 데 더 많은 시민이 동참하길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치매 인식개선을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2023 부산푸드필름페스타, 6월 30일 개막!

6.30. 19:0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개막행사로 '오프닝나이트' 개최

부산시는 영화에 음식의 맛을 더한 축제 '2023 부산푸드필름페스타(Busan Food Film Festa)'가 오는 6월 30일 '오프닝나이트(Opening Night)'를 시작으로 3일간 개최된다고 밝혔다.

2023 BFFF의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나이트'는 6월 30일 오후 7시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올해의 메인 주제 및 프로그램 소개 ▲'세레나데의 뮤지컬' 주제공연 ▲개막작 '입천장 까지도록 와그작' 상영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2,000명까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빵, 행복을 굽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2023 BFFF에는 세 개 부문(블랑제리, 파티스리, 무비 다이닝)으로 나눠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장르의 영화 9편을 선보인다.

또한, 영화 상영 전 영화 속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사전에 들을 수 있는 BFFF의 프로그래머들과 함께하는 영화 가이드 '쿡톡'을 시작으로 영화 속 음식을 직접 맛보고 알아보는 미식클래스 '푸드테라스', 부산푸드필름페스타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 '나이트크루즈 푸드테라스'가 올해도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별바다부산 나이트푸드테라스'로 명칭을 변경해 시민들에게 다가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영화제의 미공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인 '주주(主酒)클럽', 트렌디한 푸드트럭과 이색적인 음식점들의 팝업스토어 '푸드존'을 운영하며, 올해의 주제에 맞춰 부산을 대표하는 제과명장인 이흥용 명장을 초청해 재미있는 푸드 콘텐츠 토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야외광장에서도 테마존, 푸드존, 푸드트럭, 플리마켓, 포트럭 테이블 등 관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다채로운 부대행사들이 진행된다. 부산푸드필름페스타의 관객 커뮤니티 프로그램인 '포트럭 테이블'에서는 현장에서 구매하거나 직접 가지고 온 음식을 다양한 공연과 행사, 영화와 함께 즐길 수 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부산의 우수한 수산물을 선보이고 홍보할 수 있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홍보 및 특화상품 부스도 운영될 예정이며, '테마존'에서는 주제인 '빵'에 맞추어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유명 블랑제리와 파티스리 등 다양한 종류의 빵을 만나볼 수 있다.

김기환 부산시 문화체육국장은 "'영화에 음식의 맛'을 더한 부산만의 특색있는 행사인 부산푸드필름페스타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2023 BFFF 상영작 및 프로그램은 영화의전당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자세한 소식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만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푸드필름페스타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원호/기자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기획시리즈 K-브런치 콘서트 '우·아·한' 공연

크리에이티브 대금연주자 이아람, 6월 28일 11시 작은마당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은 2023 시리즈 기획 K-브런치 콘서트'우·아·한(우리의 아침을 여는 한국음악)'의 네번째 무대를 28일 오전 11시에 국악원 작은마당에서 개최한다.

K-브런치콘서트 '우.아.한'은 대전국악방송과 공동으로 우리 지역 전통음악 인프라 확충과 국악의 대중화, 생활화를 위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들과 함께 클래식, 재즈 등 다양한 장르와의 경계를 넘나드는 음악으로 국악 중심의 동시대 최고의 한국창작음악을 선사한다.

6월의 주인공 이아람은 전통음악에 대해 깊이 학습하고 탐구함과 동시에 전세계 음악 어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독창적인 세계를 만들어 가는 대금연주자이자 프로듀서이다. 무용, 탈춤, 연극, 음악극, 다원예술, 이머시브 콘서트, 설치미술, 거리예술 등 약 150여 편의 작품에서 작곡 및 음악감독을 맡았다.

또한 한국창작음악 앙상블'바람곶','블랙스트링','음악그룹 나무'에서 활동하며 세계 40여 개국 주요 페스티벌과 공연장에서 초청받아 연주하며'대체 불가능한 전방위 아티스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서정적인 선율과 전통적인 시김새를 바탕으로 다양한 현대적인 음악어법으로 작곡된 2020년 궁중문화축전'시간여행 그날 – 효명'에서 초연된 대금독주곡 '격림자규'로 공연의 시작을 알린다.

거문고산조 가락을 중심으로 대금이 유유자적하게 때로는 바삐 움직이며 고즈넉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전통음악의 진수를 거문고 연주자 김민영과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중 가장 많이 연주되는 가락을 재구성하여 연주한다.

이어 경기민요 양류가를 모티브로 새롭게 창작한 '양류가', 인도음악 어법을 차용해 다양한 표현 방식을 추구한 '바람의 여행자'를 타악 연주자 조봉국과 함께 연주한다.

파울로 코엘료'연금술사'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곡으로 자유롭게 표현한 즉흥성을 볼 수 있는 '바람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에 이어 2017년 국악방송 특집 때 초연 후 전통적인 느낌을 더욱 부각 시키고자 새롭게 편곡한 '그들의 길'을 마지막으로 연주한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계자는"대금뿐만 아닌 다양한 전통관악 연주, 작곡 그리고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이아람 연주자의 공연을 통해 전ㅌ통을 중심으로 경계 없이 어우러지는 여러 장르의 연주를 통해 한국음악의 폭넓은 음악 세계를 감상할 수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연 입장료는 전 석 1만 원이며, 예매는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인터파크에서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립연정국악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원호/기자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개최장소 아이디어 공모

주민참여형 축제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발판 마련

안동시가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개최장소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시민과 상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형 축제로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1997년 처음 개최돼 올해로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보편문화인 탈과 탈문화를 기반으로 한 세계 유일의 축제이다.

시는 지난 5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계절 축제 상생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열고 상인회를 비롯한 각 단체를 대상으로 원도심 축제에 대한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원도심 내 다양한 축제 장소를 모색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기간은 6월 23일부터 7월 3까지 11일간이며, 안동시 관내에 주소를 둔 비영리 법인단체, 상인회 또는 상인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선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심사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개최장소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서남권 대표 예술교육 전문공간 서서울예술교육센터… 뜨거운 여름, 문화예술 프로그램 속으로 풍덩

서울문화재단, 양천구 소재 서서울예술교육센터서 온 가족 위한 무료 문화예술 프로그램 가득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의 어린이 예술교육 전문공간 서서울예술교육센터(양천구 소재)가 여름을 맞이해 어린이와 가족 방문객,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준비했다.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2016년 김포가압장을 리모델링해 개관한 국내 최초 어린이, 청소년 대상 예술교육 전용공간이다. 창작과 놀이 중심의 예술 놀이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을 사로잡아 서남권 대표적인 예술교육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엄마아빠 예술로 함께'는 문화예술을 통해 육아에 지친 엄마아빠의 심신회족과 가족 간의 유대감 향상을 위해 기획했으며, 공간을 찾은 자녀와 보호자가 따로 또 같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휴식 공간을 준비했다.

서울시 주요 정책사업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엄마아빠 예술로 함께'는 매월 다른 주제로 오는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토요일 12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엄마아빠 전용 놀이터'와 '어린이 전용 놀이터'가 각각 마련되며, 야외 수조 무대에서는 ▲클래식 피아노 3중주 (peace piano trio OLO, 오후 12시), ▲버블 쇼 공연(MC선호, 오후 2시), ▲퓨전국악그룹 공연(시아, 오후 4시), ▲놀이 마당극(극단 마루한, 오후 5시) 등 온종일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육아 코칭 전문가 이수연 한국워킹맘연구소 소장이 '육아 코칭 소통 토크'(오후 1시, 3시)를 진행한다.

서서울호수공원에 근접한 센터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예술가와 어린이가 함께 자연 속에서 진행하는 놀이형 통합예술교육 '예술놀이랩(LAB)'은 여름방학을 맞아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1일 체험형으로 준비했으며, 오는 27일(화)부터 선착순 신청 가능하다.

초등 자녀를 포함한 가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전통 상여장식인 꼭두 조각을 만드는 '꼭두 미스터리 극장', ▲엄마아빠의 비밀을 주제로 가족이 같이 만드는 '엄마아빠의 비밀상자',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관계를 이해하고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뾰족하고 은은한 나뭇잎' ▲몸의 움직임과 소리를 사운드아트로 구현하는 '기술 결합형 움직임 워크숍 식물-되기' 등 4가지 프로그램을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프로그램에 참여자는 사전에 모바일로 전송되는 영상과 설문지 등을 통해 미리 학습하고 현장 수업에 참여하는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거꾸로 학습, 사전교육방식의 한 종류)을 도입해 1일 체험형 프로그램이지만 효과에 부족함이 없도록 설계했다.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시민의 일상 속으로 찾아가는 '서울스테이지11' 의 7, 8월 공연은 유아와 초등 저학년 아이들 대상 두 편의 인형극으로 구성했다.

공연은 ▲머리에 뿔이 생겨 외톨이가 된 주인공이 친구를 찾아나서는 팝업 인형극 '뿔'(7.6(목), 창작집단 인사리)과 ▲헝겊으로 만든 토끼 인형이 주인의 사랑으로 진짜 토끼가 되는 내용의 '토끼 깡충' (8.3(목), 이야기 양동이)이며, 두 공연 모두 관람 후 작품 속 주인공 인형을 직접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 해 3회 차를 맞이하는 '빼꼼'은 '위대한 만남: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과 아날로그 매체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여 가족은 텍스타일 아티스트 정희기와 가족의 추억이 담긴 조각보에 회화를 더해 콜라주 작품을 만들고, 배석민 공학박사와 생성형 이미지 AI 기술을 사용한 가족 동화책과 추상화를 만든다.

최광수/기자

'교육비 전액 무료에 취업연계와 창업지원까지!' 송파구, ICT산업 전문인재 양성과정 청년 교육생 모집

송파구, ICT산업 인재양성과정으로 4차 산업 거점지역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도모

송파구가 문정비즈밸리를 중심으로 ICT 분야 혁신을 이끌어나갈 핵심 인력을 육성하는 'ICT 산업기반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참여할 청년 교육생 5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ICT산업 기반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구가 지역 내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39세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ICT 분야에서 요구하는 현장실무 맞춤형 교육부터 취업 연계까지 제공한다.

구는 지난 4월, 양성과정에 참여할 위탁운영기관을 모집하고 청년 교육생 모집에 나섰다. 특히 올해는, 점차 늘어나는 ICT 분야 산업수요에 발맞춰 ▲'ICT기반 e커머스 셀러 양성과정' ▲'파이썬 기반 데이터분석 실무과정'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과정' 총 3개 교육으로 확대 운영한다.

▲'ICT기반 e커머스 셀러 양성과정'은 N잡러의 등장 등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변화하는 취업 트렌드를 반영해 사단법인 서울동북권기업발전협회(협회장 오태길)와의 협약으로 마련했다.

교육은 스마트스토어 개설, SNS 마케팅, 상품등록방법, 고객관리, 매출전략 등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실전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판매실습도 병행한다. 또, 청년들이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아 활발한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소자본 저위험 1인 창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데이터 관련 직종 근무를 희망한다면 ▲'파이썬 기반 데이터분석 실무과정'에 주목해보자. 구는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 등으로 산업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기업에 인사이트를 제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을 마련했다.

구는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센터장 유근수)와 협약을 맺고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통한 데이터 분석력 함양, 크롤링 기술을 통한 정보력 향상, 업무의 자동화 기술 실무 활용을 목표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협회장 이동범)와의 협약으로 사이버보안 산업 분야의 청년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세부 커리큘럼은 시스템 보안, 시스템 취약점 진단 및 분석 실습, 웹 구조 및 모의 해킹 등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기업탐방과 실무자 컨설팅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구는, 정보보호산업 특화 취업박람회 개최, 취업멘토링 제공, 기업 인턴제 연계 등으로 교육 수료가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청년은 송파구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각 과정의 모집요강을 참고하면 된다. ▲'ICT기반 e커머스 셀러 양성과정'은 20세~39세 청년 대상 26일까지 ▲'파이썬 기반 데이터분석 실무과정'은 20~39세 대상 27일까지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20~34세 청년 대상으로 오는 7월 9일까지 모집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현장맞춤형 ICT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해 청년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 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흥수/기자

"전통주 청년 창업 돕는다" '은평 한잔 빚음 사업' 청년 교육생 모집

오는 30일까지 1기수 모집…양조 전문교육부터 양조장 창업컨설팅까지 지원

서울 은평구가 전통주 분야 청년 취·창업을 지원하는 '은평 한잔 빚음 사업'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은평 한잔 빚음 사업'은 전통주 분야 취·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 대상으로 전문 양조 교육과 도심형 양조장 창업을 지원한다.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서울 거주 만 19~39세 청년으로 교육은 6기수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1기수는 오는 30일까지 청년 12명을 모집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1기수 교육은 7월 개강해 1개월간 시간씩 총 5회 교육을 진행한다. 술빚기를 처음 경험하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도록 초급과정에 맞춰져 있다. 술빚기 이론과 실습, 비즈니스 클래스, 테이스팅, 양조장 현장 견학 등을 진행한다.

일부 교육과정은 '은평 한잔 빚음' 사업으로 창업한 청년 양조장 '라이스그루브'에서 특별 강사로 나선다. 실제 창업 경험과 참여자들에게 실질적 조언을 해줄 예정이다.

교육생은 신청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전통주 관련 취·창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청년을 선발한다. 2기 이후의 신청 일정과 기수별 자세한 교육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전통주는 요즘 MZ세대에게 각광받고 있는 분야다. 이번 전통주 교육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취·창업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관악구, 유흥시설 마약류 예방·근절 합동점검

5~7월 매주 1회 관악경찰서, 소비자식품감시원과 합동점검반 구성해 유흥시설 등 야간 점검

관악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해 유흥시설 야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구는 관악경찰서, 소비자식품감시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오는 7월 말까지 유흥시설 265개소, 클럽 4개소, 주류 전문 접객업소 110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젊은 층과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신림역, 난곡사거리, 서울대입구, 사당역 일대 유흥시설 등을 불시에 방문해 식품위생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구는 현재까지 157개소에 대해 점검을 마쳤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점검과 함께 유흥시설 등 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마약류 예방과 근절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6월 26일에는 제37회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관악구보건소 1층 로비에서 불법 마약류 퇴치 관련 내용을 담은 피켓 전시와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캠페인도 펼친다.

박준희 구청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마약류 범죄가 주민 생활에 파고들 수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특히 마약류 근절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주민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관악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력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성원/기자

송파구

금천구, 글로벌기업과 스타트업을 연계하는 개방형 혁신 업무협약 체결

글로벌기업의 최신기술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기업이 혁신제품을 제작하는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금천구는 6월 21일 서울경제진흥원, 글로벌기업 에이수스(ASUS), 엔시스(Ansys)와 함께 '글로벌기업-G밸리 스타트업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우수 스타트업 발굴,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운영, 스타트업 대상 기술 워크숍 및 멘토링 지원,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금천구가 올해 추진하는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의 방식은 글로벌기업의 최신기술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이 혁신제품을 제작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G밸리에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우수 스타트업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글로벌기업은 최신기술을 점검하고, 참가한 스타트업은 글로벌기업과 서울경제진흥원으로부터 자사 제품의 상용화 및 고도화를 위한 전문적인 멘토링을 받게 된다.

금천구는 스타트업 중 우수 기업에 금천구 내 창업공간에 입주할 기회를 줄 계획이다.

한편 에이수스(ASUS)는 전 세계 1위 메인보드 판매 기업이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 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oT) 시장에 진출했다. 엔시스(Ansys)는 자율주행, 5G,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에 활용되는 시뮬레이션 기술 전문기업이다. 이들 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을 통한 성과가 주목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G밸리 내 상생협력을 위한 기반이 조성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G밸리에 우수한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들이 성장해 지역 내 일자리창출과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